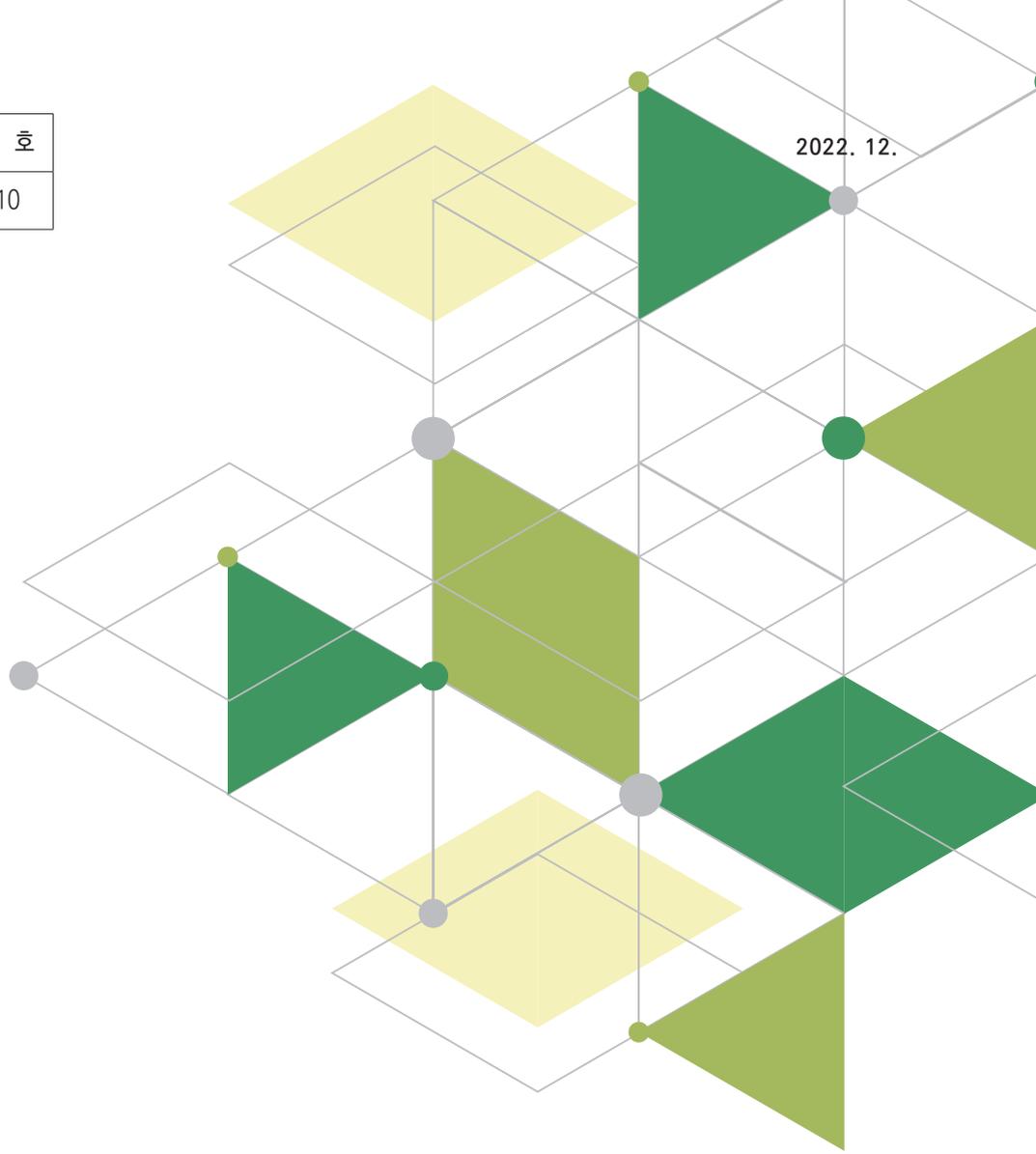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2022. 1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사업: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민 경 찬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민 석 연구원

유 서 영 연구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에 근거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민 특성과 거주 지역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2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다.

둘째, 2022년에 수행한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정책 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 및 농어촌에서의 분만의료 및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제4차 삶의 질 정책의 4대 전략부문별 생활서비스 시설의 이용 여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만의료 및 영유아 돌봄 여건은 전체 조사대상 중 최근 5년 이내(2018년~2022년)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문별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 여건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주 만족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주관적 건강 인식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점수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전년도보다 하

락하였다. 두 지역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농어촌 지역의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 항목에서의 만족도가 모두 6.3점으로, 도시 지역보다 각각 0.5점, 0.3점, 0.4점씩 높았다. 반면 마을 및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최근 3년간의 추세와 이어지고 있다.

‘주관적 웰빙 지수’는 농어촌 지역이 6.0점으로 도시 지역의 5.4점과 비교하여 더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전 조사 시점인 2020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두 지역에서 모두 소폭 상승하였으며, 어제의 우울 정도와 같이 부정적 정서의 해소가 두드러진다.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점수는 전년도 대비 0.1~0.2점 가량 하락하였다. 신규 항목 중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와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높으나 타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도는 오히려 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의 부문별 만족도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5.3점으로 도시 지역의 6.4점보다 1.1점 낮았다. 전략부문 중에는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격차가 1.7점으로 가장 극심했다. 4대 전략부문별 도·농 만족도 격차 역시 전년도보다 전체 평균 점수가 0.3점 더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부문에서 지난 5년 동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분만과 관련된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2.5점(도시 6.8, 농어촌 4.3)으로 가장 극심했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각각 1.4점, 1.3점으로 여전히 두드러졌으며,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낮았다.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의 만족도 격차가 1.9점(도시 7.2, 농어촌 5.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와 연결되는 ‘생활 서비스’, ‘다양한 외식 장소’ 등 일상생활 소비와 관련된 여건에 대한 격차가 각각 1.5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의 기회 측면에서의 여건을 도시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0.7점 정도로 다른 정주 여건에 비해 크지 않았다. 4대 정책 부문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의견에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필요 시 받을 수 있

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을 꼽았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복지 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중요도 7.4점)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5.1점에 그쳐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 주민은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였다. 또한 대중교통과 일상 소비생활에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연령대도 40대 이하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소비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 주민은 그 외 연령대에 비해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면 지역 사이의 차이는 도시 및 농어촌 사이의 차이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의 여건에 대해서 읍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면 지역 주민 만족도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는 오히려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0.1점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 접근성, 나아가 분만의료 여건에 더해 일상 소비 활동,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분만 및 응급의료, 주거·생활 여건, 경제활동 기회의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경상북도 지역은 자녀 교육 여건과 문화 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농어촌 주민 중 40.9%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 중 88.5%가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는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보다 크게 저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분만의료 여건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평균 45.8분으로, 도시보다 20.6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의료와 출산 여건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모두 도시보다 낮았으며, 특히 분만의료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다. 또 다른 문항을 통해 영유아 돌봄 여건과 만족도도 살펴보았는데,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 기관 이용 비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별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았다. 등하원 통학수단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80.3%가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도보로 등원하는 비율이 41.9%로 높았다.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 차량 모두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두 지역 모두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꼽았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영유아 양육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약간 높았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삶의 질 4대 전략부문별 26개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의료기관, 음식점 및 카페, 대형 마트나 시장 등의 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비슷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노인복지 관련 시설, 금융기관, 행정기관 이용률은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월간 이용 횟수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대중교통 시설 월간 이용 횟수는 도시 지역 주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각 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차량 이용자를 기준으로 각 시설까지의 편도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대부분에 시설에 대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시간이 도시 지역에 비해 5~10분 이상 더 길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의료시설 및 정주기반 분야의 시설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민간 서비스 시설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은 공공 서비스 시설과 민간 서비스 시설 모두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2

제2장 조사 개요

- 1. 조사 방법 5
- 2. 조사 항목 7
- 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12

제3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 1. 삶의 만족도 변화: 도시-농어촌 간 비교 15
- 2. 삶의 질 계획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도시-농어촌 간 비교 21
- 3. 삶의 질 계획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주민 특성별 비교 31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분석

- 1. 분만의료 및 영유아 돌봄 여건 47
- 2.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 55

제5장 결론

- 1. 조사 결과 요약 65
- 2. 시사점 68

부 록

- 1. 2022년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71
- 2. 2020~2022년 도·농 정주 만족도 점수 추이 87
- 3. 2022년 4대 전략부문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89

- 참고문헌 93

제2장

〈표 2-1〉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항목 신규 문항 7
 〈표 2-2〉 2022년 조사 부문별 세부 문항 변경 사항 9
 〈표 2-3〉 2022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10
 〈표 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조사 문항 11
 〈표 2-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2
 〈표 2-6〉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3

제3장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6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17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변화(2020년과 비교) 18
 〈표 3-4〉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9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22
 〈표 3-6〉 보건·복지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5
 〈표 3-7〉 교육·문화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6
 〈표 3-8〉 정주기반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7
 〈표 3-9〉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8
 〈표 3-10〉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부문별 중요도 평균 점수 28
 〈표 3-1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전략부문 만족도 32
 〈표 3-1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전략부문 만족도 34
 〈표 3-1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전략부문 만족도 35
 〈표 3-1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만족도 36
 〈표 3-15〉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별 읍·면 주민 만족도 37
 〈표 3-16〉 보건·복지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38

〈표 3-17〉 교육·문화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39
〈표 3-18〉 정주기반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39
〈표 3-19〉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40
〈표 3-20〉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 시·도별 만족도	41
〈표 3-21〉 시·도별 분만·응급의료 서비스, 주거·생활 여건, 경제활동 기회 만족도	42
〈표 3-22〉 시·도별 자녀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만족도	43
〈표 3-23〉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44
〈표 3-24〉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46

제4장

〈표 4-1〉 도·농 간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에 대한 만족도	49
〈표 4-2〉 자녀 보육 기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비교	53
〈표 4-3〉 도·농 간 영유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53
〈표 4-4〉 도·농 간 영유아 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 비교	54
〈표 4-5〉 4대 전략별 생활서비스 시설 목록	55
〈표 4-6〉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률	56
〈표 4-7〉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횟수	58
〈표 4-8〉 생활서비스 시설별 차량 접근성	60
〈표 4-9〉 지난 한달간 생활 반경	61
〈표 4-10〉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시설 중요도	62
〈표 4-11〉 현재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63

제2장

〈그림 2-1〉 조사 개요 6

제3장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6

〈그림 3-2〉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17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비교 20

〈그림 3-4〉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22

〈그림 3-5〉 4대 전략부문별 도·농 만족도 점수 추이 23

〈그림 3-6〉 4대 전략부문별 중요도 평균 점수 비교 29

〈그림 3-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30

〈그림 3-8〉 이주 의향이 있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45

제4장

〈그림 4-1〉 분만한 산부인과까지의 이동시간 48

〈그림 4-2〉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 및 돌봄 방법 50

〈그림 4-3〉 자녀의 등하원 교통수단 51

〈그림 4-4〉 교통수단별 등하원 평균 이동시간 52

〈그림 4-5〉 생활서비스 시설 이동 수단 59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동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국무조정실 총괄 이하 21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2015년 7월 1일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출

범하였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농촌 지역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4년부터는 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측정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2021년부터는 삶의 질 정책 업무 일환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특정 주제별로 도·농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2.1.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상태를 파악한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지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등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역별·연도별로 비교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실태와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

다. 부문별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평가하는 정주 여건을 측정한다.

- 또한 4개 부문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와 해당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평가하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시도한다.
- 그밖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 유형별, 거주 지역별 삶의 질 기본계획 각 정책 부문 여건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를 연령대, 직업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여건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 또한 거주하는 읍·면부에 따른 만족도, 시·도별 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지역 간 정주 여건 실태를 비교한다.

2.2.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비교 분석: 분만의료 및 영유아 돌봄, 생활서비스 측면

○ 2021년부터 실시한 농어촌 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 비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하고,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이다.

- 정책 주제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사업의 인지도 및 활용 정도,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조사와 병행하여 도·농 주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2022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정책 과제는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이다. 이에 도시 및 농어촌 주민 중 5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거나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 분만의료와 관련해서는 출산했던 산부인과의 규모 및 이동시간, 분만의료시설 및 지

역의 출산 여건과 만족도 등에 대한 도·농 간 차이를 살펴본다. 영유아 돌봄 여건과 관련해서는 자녀 돌봄 방법, 지역 내 돌봄기관별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 추가적으로 삶의 질 정책의 각 전략부문별 생활서비스 시설의 이용 여건 및 접근성을 파악하고자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26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해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동방법 및 이동시간, 시설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도·농 간 차이를 비교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¹⁾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2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응답자 표본을 추출했다.

- 본 조사에서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항²⁾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도시 지역은 700명,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1) 전문 리서치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225명이며, 그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855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370명이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73\%p$ 이다.

<그림 2-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25명
표본 오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73\%p$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0. 07. ~ 2022. 11. 04.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항목

- 매해 수행하고 있는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조사 문항과 틀을 유지 하되 사회적 환경, 그해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에 맞추어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지표 중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항목에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과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을 추가하였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문항 중 전문지원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 영향평가와 연계되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세부적인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매년 수행되는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2018년 도 조사부터 동일하게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였다.

2.1.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타지역 출신 주민에 대한 태도의 개방 정도와 타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도를 확인하고자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과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을 추가하였다.
 -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표 2-1>과 같이 응답자에게 타주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신규 항목을 2개 추가하였다.

〈표 2-1〉 공동체 및 지역사회 항목 신규 문항

지표명	문항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나는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나는 거주 지역 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린다. (예: 네이버 밴드,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자료: 저자 작성.

○ 2022년 전문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 영향평가와 연계성이 있는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 올해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분만의료 도·농 간 격차 해소」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 보건·복지 부문 여건의 세부 문항에 ‘산후조리 서비스’와 ‘여성 출산 지원’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임신과 출산 여건에 대해 기존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 각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새로이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을 추가하고, 전년도 조사 문항에서 조사 변별력이 낮은 문항을 통폐합하였다<표 2-2>.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문항이었던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 복지 지원’ 문항과 통합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 삶의 질 기본계획 내 세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 향토문화 기회’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 주민의 구체적인 정주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난방 비용’,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주민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을 파악하고자 ‘소득 기회’ 문항을 ‘일자리 용이성’과 ‘일자리 충분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년도에 농어촌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던 ‘로컬푸드 판매’와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문항을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설문하였다. 또한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문항을 별도의 공통문항으로 분리하였다.

〈표 2-2〉 2022년 조사 부문별 세부 문항 변경 사항

부문	문항	비고
신규 및 통합	[산후조리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 출산 지원] 출산 지원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통합
	[지역 향토문화 기회] 지역 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난방 비용] 연간 지출되는 난방비가 적절하다.	
	[식자재 구입] 편의점, 마트 등에서 양질의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양한 외식 장소] 카페, 식당 등 외식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다양하다.	
	[일자리 용이성] 시간제, 임시직 등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일자리 충분성] 우리 지역에는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하다.	
공통 문항으로 변경	[충분한 소득] 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받을 수 있다.	
	[로컬푸드 판매]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 판매,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우리 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있다.	
삭제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다문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응급차량 접근 용이]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에 소방차, 앰블런스 등 응급차량이 접근하기 용이하다. ³⁾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지역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비용 절감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여건 향상]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자료: 저자 작성.

○ 이를 종합한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정책 전략부문별 여건 만족도 등이다(표 2-3).⁴⁾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지수,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항목에서는 주관적인 건강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와 타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각 항목의 구체적인 인식을 구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 해당 문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생산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에서 측정하는 '응급의료' 항목,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하는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측정하는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 등 항목 등 유사한 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4) <부록 1>의 '2022년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일부 항목에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 2022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주관적 웰빙 지수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별 관련 시설 이용 현황 ※ 4대 전략: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4대 전략부문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개 분야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자료: 저자 작성.

2.2.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조사 문항

○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인 ‘영유아 돌봄 여건’과 ‘분만의료 여건’과 관련하여 도·농 간 비교가 가능한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영유아 돌봄 여건과 관련하여 이용 중인 돌봄기관 및 돌봄 방법,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육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 분만의료 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출산 산부인과의 규모 및 이동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고 해당 지역에서의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과 관련한 만족도와 분만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하였다.

○ 또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들의 실제 생활서비스 이용 시 차이를 살펴보고자 부문별 생활

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사하였다.

-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4대 전략별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을 선정하고, 지역 내에서 해당 시설의 이용 여건이 어떠한지 도·농 간에 비교하였다.
- 보건·복지(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6개 시설), 교육·문화(초등학교, 민간교육시설, 도서관 등 9개 시설), 정주기반(이미용실, 음식점, 소매점, 금융시설, 대중교통 등 7개 시설), 경제·일자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4개 시설)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설별 이용 여부 및 평균 방문 횟수, 주된 이동 방법 및 이동시간 등을 설문하였다.⁵⁾

〈표 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조사 문항

구분	세부 항목
영유아 돌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유무 및 주 양육자 ○ 이용 중인 돌봄기관, 돌봄 방법, 등하원 방법 및 시간 ○ 이용 중인 돌봄기관 개선 요구 사항 ○ 정부 제공 양육지원 기관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분만의료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시기 및 출산 산부인과 규모, 이동 시간 ○ 출산 산부인과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는 지역의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 만족도 ○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4개 전략별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여부, 방문횟수, 이동방법 및 시간, 중요도 ○ 경찰서/소방서까지 접근성 ○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 선택시 이동시간, 이동방법 간 상대적 중요도 ○ 지난 한 달간 생활 변경

자료: 저자 작성.

⁵⁾ 4대 전략부문별로 선정한 시설의 목록은 제4장의 〈표 4-5〉를 참조.

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5>와 같다.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합해 총 3,225명의 응답자 중 인천·경기 지역 응답자가 720명 (22.3%)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는 50대 응답자가 828명(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 구성으로는 2세대 가구가 과반을 차지했다.

<표 2-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225	100.0	전체		3,225	100.0
도시·농어촌 구분	도시(동)	855	26.5	연령대	19~29세	394	12.2
	농어촌(읍·면)	2,370	73.5		30대	439	13.6
거주지역	서울	214	6.6		40대	662	20.5
	인천·경기	720	22.3		50대	828	25.7
	대전·충청	602	18.7		60대	647	20.1
	광주·전라	475	14.7		70대 이상	255	7.9
	대구·경북	425	13.2	혼인상태	기혼	2,356	73.1
	부산·울산·경남	504	15.6		미혼	869	26.9
		강원·제주	285	8.8	직업	농림어업	608
거주기간	10년 미만	1,303	40.4	자영업		346	10.7
	10~19년	664	20.6	사무·관리직		737	22.9
	20~29년	520	16.1	생산·기능·노무직		229	7.1
	30~39년	268	8.3	판매/영업직		100	3.1
	40년 이상	470	14.6	서비스직		142	4.4
성별	남성	1,619	50.2	전문/기술직		235	7.3
	여성	1,606	49.8	주부		395	12.2
주택형태	단독주택	1,245	38.6	학생		97	3.0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	467	14.5	퇴직		104	3.2
	아파트	1,466	45.5	무직/기타	232	7.2	
	비거주용건물	38	1.2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19	6.8
	기타	9	0.3		1,000만 원대	299	9.3
가구구성	독신 가구	482	14.9		2,000만 원대	524	16.2
	1세대 가구	856	26.5		3,000만 원대	574	17.8
	2세대 가구	1,704	52.8		4,000만 원 이상	1,609	49.9
	3세대 가구	171	5.3				
	조손 가구	12	0.4				

자료: 저자 작성.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주요 통계적 특성은 <표 2-6>과 같다.

- 농어촌 지역 응답자 전체 2,370명 중 면 지역 응답자가 1,299명으로 더 많았다. 지역으로는 대전·충청권 응답자가 21.9%, 인천·경기 18.8%, 광주·전라 17.1% 순으로 이어졌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의 24.9% 수준이며, 50대가 27.8%로 가장 많았다.

<표 2-6>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370	100.0	전체		2,370	100.0
농어촌 구분	읍부	1,071	45.2	성별	남성	1,105	46.6
	면부	1,299	54.8		여성	1,265	53.4
거주지역	서울	-	-	연령대	19~29세	248	10.5
	인천·경기	445	18.8		30대	298	12.6
	대전·충청	520	21.9		40대	487	20.5
	광주·전라	406	17.1		50대	660	27.8
	대구·경북	353	14.9		60대	434	18.3
	부산·울산·경남	387	16.3		70대 이상	243	10.3
	강원·제주	259	10.9		혼인상태	기혼	1,814
거주기간	10년 미만	918	38.7	직업	미혼	556	23.5
	10~19년	455	19.2		농림어업	591	24.9
	20~29년	352	14.9		자영업	262	11.1
	30~39년	206	8.7		사무·관리직	429	18.1
	40년 이상	439	18.5		생산·기능·노무직	178	7.5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403	17.0	판매/영업직	75	3.2	
	아니다	1,967	83.0	서비스직	116	4.9	
주택형태	단독주택	1,155	48.7	전문/기술직	136	5.7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	269	11.4	주부	297	12.5	
	아파트	904	38.1	학생	61	2.6	
	비거주용건물	33	1.4	퇴직	60	2.5	
	기타	9	0.4	무직/기타	165	7.0	
가구구성	독신 가구	342	14.4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170	7.2
	1세대 가구	719	30.3		1,000만 원대	245	10.3
	2세대 가구	1163	49.1		2,000만 원대	408	17.2
	3세대 가구	138	5.8		3,000만 원대	460	19.4
	조손 가구	8	0.3		4,000만 원 이상	894	45.9

자료: 저자 작성.

3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1. 삶의 만족도 변화: 도시-농어촌 간 비교

- 본 절에서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지수,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를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측정한 5개 항목의 점수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 현재 행복감과 만족감, 지역의 발전 전망과 주관적 건강 인식을 나타내는 점수 모두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비슷한 폭으로 하락하였다.
 - ‘현재 행복감’과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 문항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지난 3년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의 평가를 소폭 밑돌고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 지역 주민들보다 부정적인 편이다.

〈표 3-1〉 최근 3년 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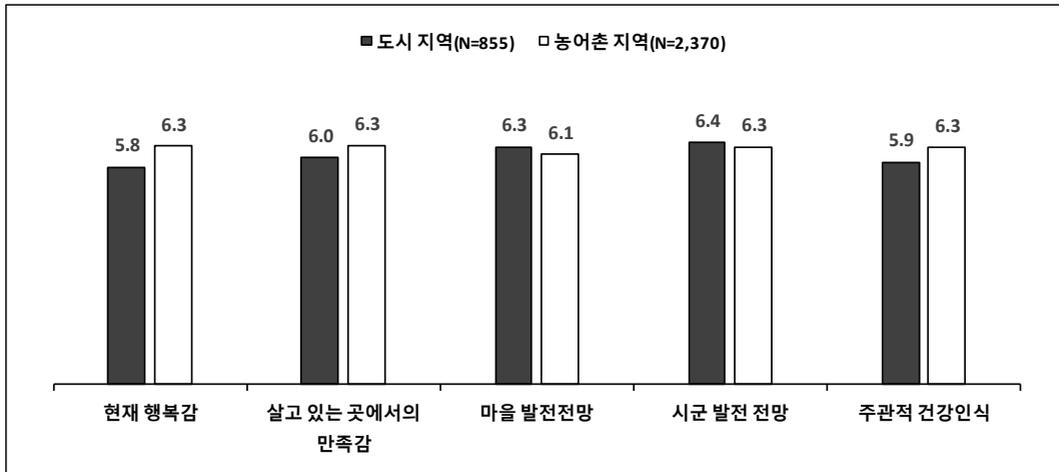
(11점 척도)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주관적 건강 인식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도시 지역	5.5	6.2	5.8	5.8	6.4	6.0	6.2	6.8	6.3	6.3	6.9	6.4	-	6.3	5.9
농어촌 지역	6.2	6.6	6.3	6.3	6.7	6.3	5.7	6.5	6.1	6.0	6.6	6.3	-	6.5	6.3
도·농 차이	0.7	0.4	0.5	0.5	0.3	0.3	-0.5	-0.3	-0.2	-0.3	-0.3	-0.1	-	0.2	0.4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시기별('21·'22) 비교 시 χ^2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최근 삶에 대한 주관적인 웰빙 지수를 살펴본 결과, 앞선 문항과 유사하게 농어촌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정도’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이 응답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정서를 묻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항목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낮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5개 문항을 포괄하는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최근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며, 근심·걱정이나 우울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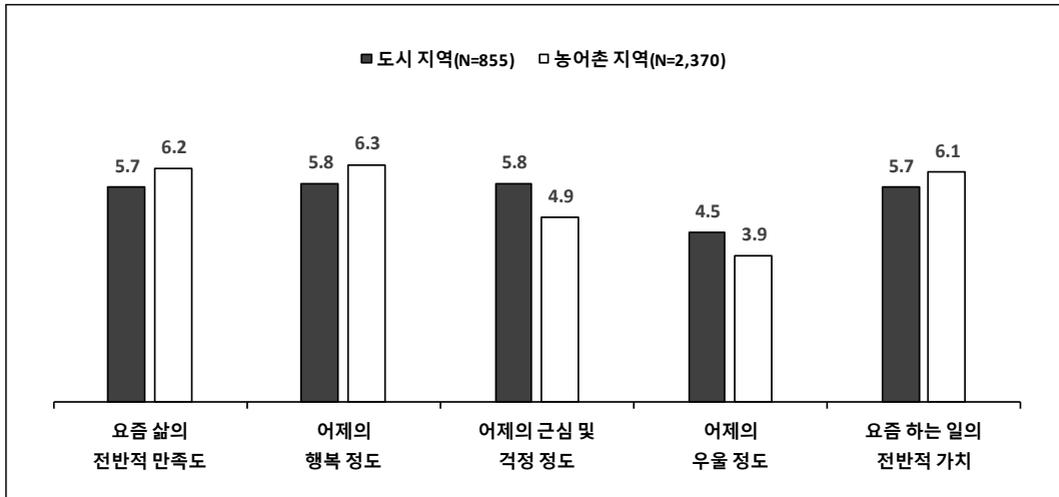
구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 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도시 지역	5.7	5.8	5.8	4.5	5.7	5.4
농어촌 지역	6.2	6.3	4.9	3.9	6.1	6.0
도·농 차이	0.5	0.5	-0.9	-0.6	0.4	0.6

주: 3번, 4번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2〉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11점 척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주관적 웰빙 지수에 대한 직전 조사 시기인 2020년 조사 결과와 응답 내용을 비교해보면, 부정적 정서의 해소가 눈에 띈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2년 사이에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 정서인 ‘요즘 삶에 대한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에 대한 점수는 상승 또는 유지된 반면, 부정적 정서인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는 유지 또는 감소하였다.
- 부정적 정서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데, 특히 ‘어제의 우울 정도’ 점수는 2020년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5.1점, 4.3점이었다가 올해 조사에서 4.5점, 3.9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표 3-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변화(2020년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 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20	'22	'20	'22	'20	'22	'20	'22	'20	'22	'20	'22
도시 지역	5.5	5.7	5.6	5.8	5.9	5.8	5.1	4.5	5.7	5.7	5.2	5.4
농어촌 지역	6.1	6.2	6.1	6.3	4.9	4.9	4.3	3.9	5.9	6.1	5.8	6.0
도·농 차이	0.6	0.5	0.5	0.5	-1.0	-0.9	-0.8	-0.6	0.2	0.4	0.6	0.6

주: 3번, 4번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올해 조사에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에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함께 타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해 개방되어있는 태도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에서 ‘지역사회 활동’이란 정당,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등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단체 활동을 포괄한다.
-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왕래하거나 이주해오는 타지역 출신 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이웃과의 관계’라는 기존 문항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은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 다른 지역 주민들과 인터넷이나 SNS, 온라인 동호회 등 매체를 중심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정도를 묻는다.

○ 농어촌 지역에서 전년도 결과와 비교 가능한 항목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전년도 보다 하락하였다.

-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 항목이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과 같은 결과이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항목에 대한 점수는 0.2점 상승하였다.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와 타지역에 주민에 대한 개방 정도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타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정도는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와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문항에 대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는 각각 4.2점, 6.1점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4.5점, 6.3점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 하지만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에 대한 점수가 도시 지역에서 4.6점인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보다 낮은 4.3점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타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정도는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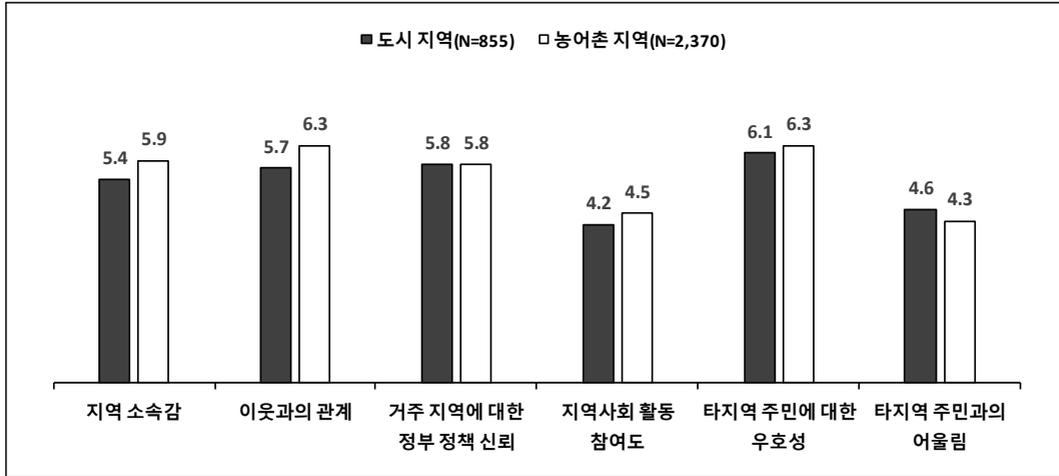
구분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타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21	'22
도시 지역	5.7	5.4	5.8	5.7	5.6	5.8	-	4.2	-	6.1	-	4.6
농어촌 지역	6.1	5.9	6.4	6.3	6.0	5.8	-	4.5	-	6.3	-	4.3
도·농 차이	0.4	0.5	0.6	0.6	0.4	0.0	-	0.3	-	0.2	-	-0.3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시기별('21·'22) 비교 시 χ^2 값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비교

(11점 척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삶의 질 계획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도시-농어촌 간 비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추진 전략부문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부문별 세부 문항에 대한 여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부문별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의 평균을 해당 부문의 만족도 점수로 종합하였다. 이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 비교의 엄밀성을 위해 전체 응답자에 공통적으로 설문한 문항만을 부문별 평균 계산에 반영하였다.

2.1. 4대 전략부문 평균 점수 변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의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전히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5).

-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개 부문 모두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이 1.7점 차이, 그리고 교육·문화 부문 1.1점 차이, 정주기반 부문 0.9점 차이, 경제·일자리 부문 0.5점 차이 순이다.

○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 모두에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전년도보다 커졌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제외하고, 두 지역에서 4개 부문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하락하였다. 하지만 도시 지역은 전년도보다 평균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0.1점 하락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0.4점 하락하여 하락 폭이 크고,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전년도보다 더 벌어졌다.
-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전년도에는 도시 지역보다 만족도 점수가 1.2점 낮았으나 올해는 1.7점으로 차이의 폭이 더 커졌다.

〈표 3-5〉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11점 척도)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1	'22	'21	'22	'21	'22
보건·복지	7.0	6.8	5.8	5.1	-1.2	-1.7
교육·문화	6.4	6.3	5.4	5.2	-1.0	-1.1
정주기반	7.1	7.1	6.4	6.2	-0.7	-0.9
경제·일자리	5.6	5.2	5.3	4.7	-0.3	-0.5
전체 평균	6.5	6.4	5.7	5.3	-0.8	-1.1
*동일 문항만 비교시	6.6	6.4	5.7	5.3	-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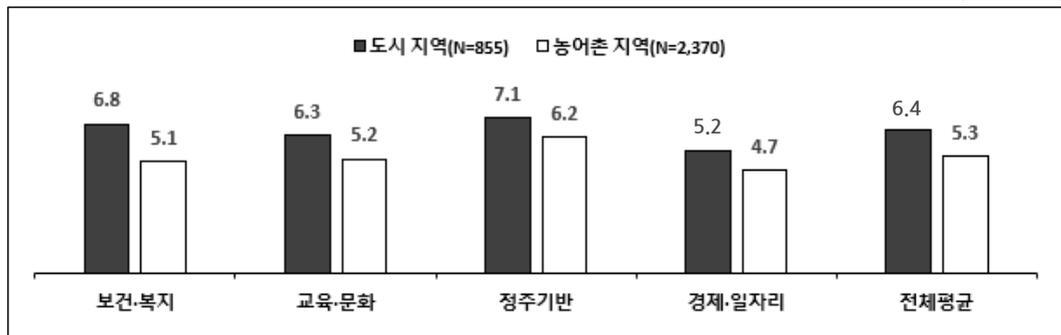
주 1) 연도별 평균 비교 시, χ^2 값은 농어촌 지역 모든 부문 유의미한 차이(p<0.01) / 도시 지역 '정주기반'(p<0.01), '보건·복지'와 '교육·문화'(p<0.05), 지역별 평균('21) 비교 시, 모든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p<0.01, '경제·일자리' p<0.05).

2)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설문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더라도 값에 큰 변화는 없음.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4〉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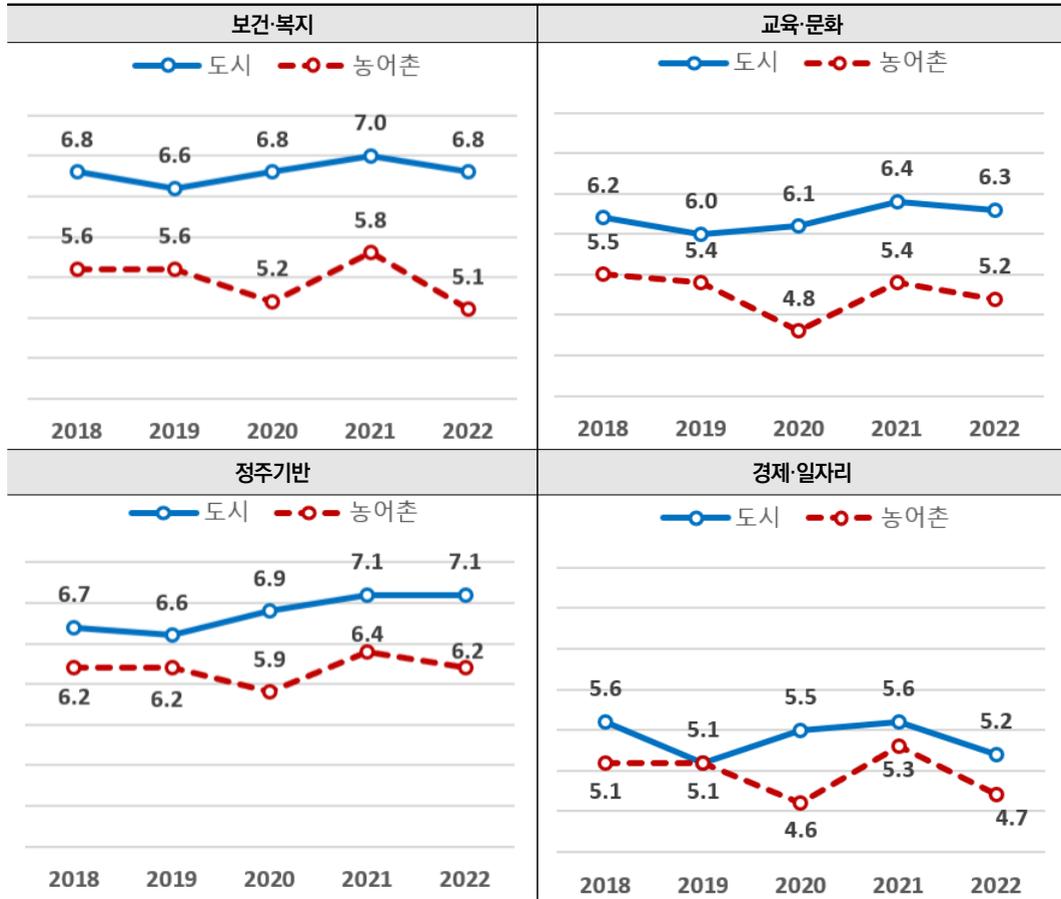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지난 5년간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도·농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 지난 2021년 농어촌 주민들의 전략부문별 만족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모든 부문에서 차이가 크게 좁혀졌으나, 올해 그 격차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수준으로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문화와 정주기반에서도 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였다.

〈그림 3-5〉 4대 전략부문별 도·농 만족도 점수 추이

(11점 척도)



주: 2020년 이전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을 현재 4대 부문에 맞추어 산출한 수치임.

자료: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2.2. 4대 전략부문별 세부 항목 만족도 비교

□ 보건·복지

○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낮았다. 또한 보건·복지 전략부문에서의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만족도 격차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전략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⁶⁾
-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두드러지며,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와 ‘산후조리 서비스’ 등 분만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에서 분만과 관련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여건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도시 지역과 만족도 점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분만 의료 서비스(4.3점)’, ‘산후조리 서비스(4.0점)’뿐 아니라 ‘여성 출산 지원(4.4점)’ 등 분만과 관련된 문항이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응답 중 가장 낮았다.
-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도시 지역과의 상대적인 비교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내에서의 절대적인 여건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분만 과정과 관련된 정책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⁶⁾ 도시 지역에서 ‘농어작업 안전’ 항목에 응답한 종사자는 16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 계산 시 제외하였다.

〈표 3-6〉 보건·복지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여성 출산 지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7	7.3	7.2	6.8	6.4	6.2	7.0	6.5	6.4	6.2	-	6.8
농어촌 지역	6.1	5.1	5.3	4.3	4.0	4.4	5.2	5.6	5.3	5.4	7.1	5.1
도·농 차이	-1.6	-2.2	-1.9	-2.5	-2.4	-1.8	-1.8	-0.9	-1.1	-0.8	-	-1.7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χ^2 값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농어작업 안전' 항목 제외).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 교육·문화 여건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도시 지역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문화·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다.

-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는 1.4점,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1.3점으로, 교육·문화 부문 중 두 세부 항목 여건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육·문화 여건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동'이었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 '공교육 수준'과 '방과 후 교육 기회'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8점, 5.6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덜했다. 반면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7점,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8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대학생 멘토링이나 마을교사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문화 공동체 활동'은 동호회나 소모임과 같은 문화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교육·문화 각 활동에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표 3-7〉 교육·문화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8	6.7	6.2	5.9	6.6	6.3	5.8	6.0	6.3
농어촌 지역	5.8	5.6	5.1	4.7	5.2	5.0	4.8	5.3	5.2
도농 차이	-1.0	-1.1	-1.1	-1.2	-1.4	-1.3	-1.0	-0.7	-1.1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χ^2 값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 정주기반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모든 세부 문항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를 밑돌았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심했으며, ‘생활 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 ‘대중교통’에 대한 도시 지역 주민과의 만족도 점수 격차는 1.9점으로 가장 컸으며 ‘생활 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도 각각 1.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정주기반 부문 중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그 외에 ‘난방 비용’에 대한 문제도 농어촌 지역 주민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대중교통’ 문항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5.3점으로 정주기반 부문 내에서 가장 낮다. 대중교통 여건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에 이어 꾸준히 농어촌 지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며, 매년 실시되는 본 조사에서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용’에 대한 낮은 점수는 도시 지역과는 다르게 석유를 연료로 하는 개별 난방을 많이 이용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세부 문항 중 올해 추가된 ‘다양한 외식 장소’ 문항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카페나 식당 등 외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지 묻는 문항으로, 지역에서의 식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3-8〉 정주기반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대중 교통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 비용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주택 상태	교통 안전	자연 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 경관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2	7.8	7.5	6.4	7.3	7.6	7.3	7.0	6.7	7.3	7.0	6.9	6.9	7.1
농어촌 지역	5.3	6.9	6.7	5.5	5.8	6.3	5.8	6.2	6.2	6.7	6.7	6.4	6.5	6.2
도·농 차이	-1.9	-0.9	-0.8	-0.9	-1.5	-1.3	-1.5	-0.8	-0.5	-0.6	-0.3	-0.5	-0.4	-0.9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χ^2 값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범죄 안전' 항목은 $p < 0.0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 간 만족도 격차는 다른 3개 부문에 비해 심하지 않았지만, 전체 세부 문항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 주민보다 낮았다. 그중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은 일자리 분야 관련 문항이었다.

- 시간이나 형태 등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일자리 용이성', 지역 내에 일자리를 비롯한 소득 활동 기회가 충분하게 마련되어있는지 여부를 묻는 '일자리 충분성', 취·창업을 위한 지원이 충분한지 묻는 '일자리 지원' 항목에서 도시 지역과 만족도 격차가 각각 0.7점으로 가장 컸다.
- 뒤이어 내가 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는지 묻는 '충분한 소득' 항목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0.6점 낮아,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일자리 용이성'과 '일자리 충분성'이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는 4.3점, '일자리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는 4.4점으로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표 3-9〉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 활동지원	(농촌만)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전체 평균
도시 지역	5.1	5.0	5.4	5.3	5.5	5.0	5.2	-	5.2
농어촌 지역	4.4	4.3	4.8	4.6	5.3	4.9	5.0	4.9	4.7
도·농 차이	-0.7	-0.7	-0.6	-0.7	-0.2	-0.1	-0.2	-	-0.5

주 1) 균형있는 비교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조사된 문항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계산함.

2) χ^2 값은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도·농 간 유의미한 차이($p < 0.001$, '로컬푸드 판매' 항목은 $p < 0.01$,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항목은 $p < 0.05$).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3.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별 중요도

- 삶의 질 4대 정책 전략부문 중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이라고 응답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이 평가한 정책 중요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문화 측면에서 두 지역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10〉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부문별 중요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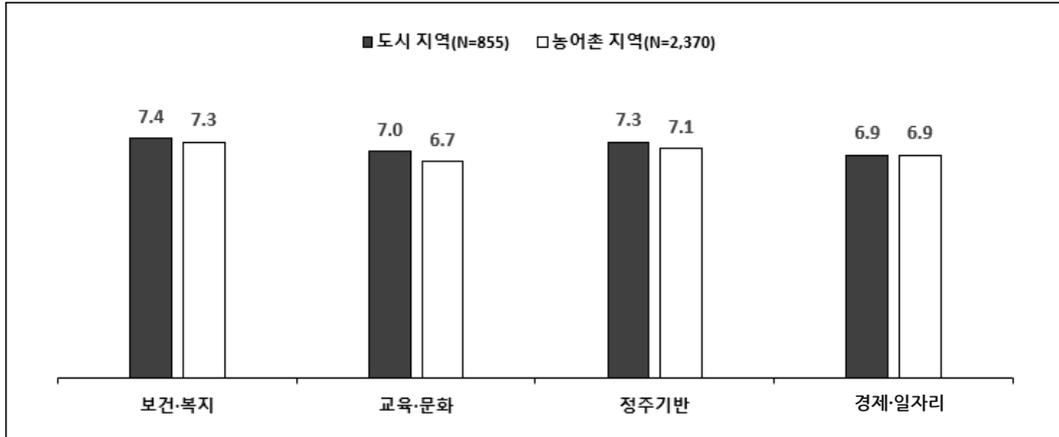
(11점 척도)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	7.4	7.3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여건	7.0	6.7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	7.3	7.1
적절한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일자리 여건	6.9	6.9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그림 3-6〉 4대 전략부문별 중요도 평균 점수 비교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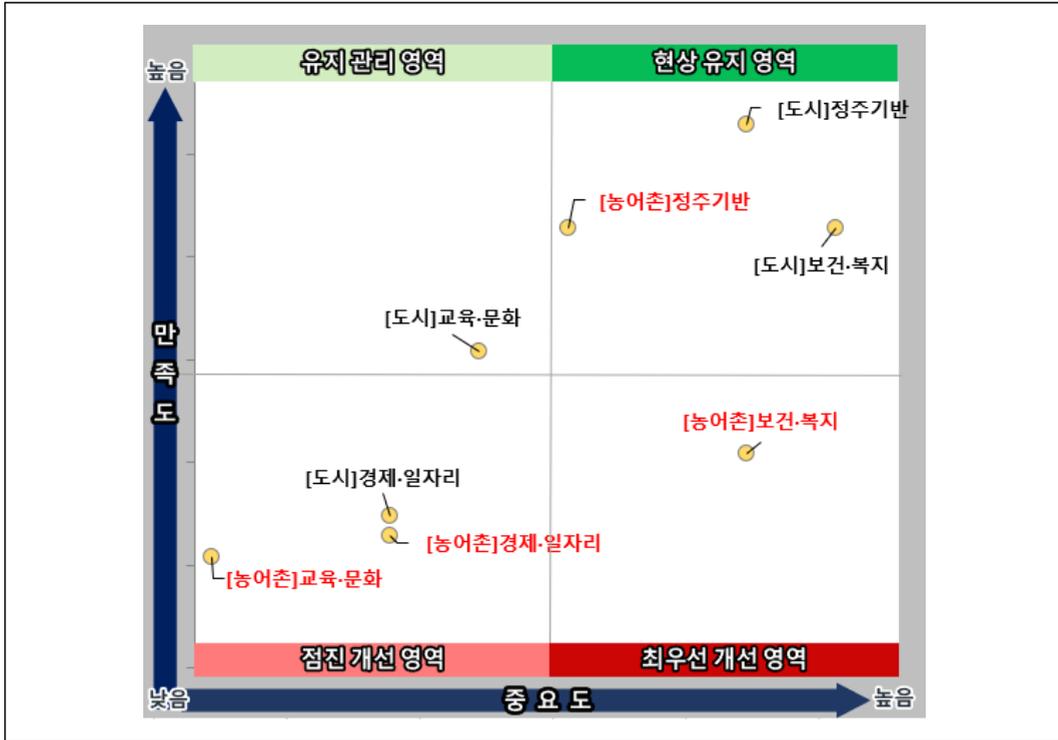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4대 정책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있어 정책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보건·복지 부문이 해당하였다.

-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와 중요도가 둘 다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주기반 부문이었으며, 경제·일자리와 교육·문화 부문은 만족도와 중요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 도시 주민들은 경제·일자리 부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주기반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범주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11점 척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삶의 질 계획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주민 특성별 비교

- 본 절에서는 농어촌 주민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점수를 주민 특성(개인 특성, 지역 구분, 이주 의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 농림어업 종사 여부에 따라 각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지역을 읍·면으로 구분하여 각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해보고, 전국 단위에서 각 시·도 구분에 따라 만족도 점수 도출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따른 정주 여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이주 희망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3.1. 개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 보건·복지

- 보건·복지 전략부문의 항목별 여건에 대해서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 응답자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경향과 마찬가지로, 40대 이하 응답자는 ‘분만의료 서비스(4.1점)’, ‘산후조리 서비스(3.9점)’, ‘여성 출산 지원(4.3점)’ 여건에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출산과 관련된 세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전 연령대에서 낮았다.
 - 그밖에 40대 이하 응답자의 만족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 항목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4.6점)’였다. 앞서 출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낮았던 것에 비해 응급의료 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와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비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분만 의료 서비스’와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고르게 낮은 것은 앞서 살펴본 경향과 동일하다.
- 보건·복지 정책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직업별 만족도 점수 차이가 근소한 가운데,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농림어업 종사자와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 차이가 0.4점으로 두드러졌다.

○ 연령별 응답 결과는 ‘농어작업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연령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직업별 응답 결과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에서 직업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1〉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전략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의료 서비스 접근성	5.8	6.4	6.4	6.1	5.9	6.3	6.1
의료 서비스 범위	4.9	5.3	5.4	5.3	5.1	5.2	5.1
의료 서비스 수준	5.0	5.4	5.5	5.3	5.3	5.3	5.2
분만 의료 서비스	4.1	4.6	4.5	4.2	4.5	4.3	4.2
산후조리 서비스	3.9	4.2	4.2	3.8	4.2	4.0	3.9
여성 출산 지원	4.3	4.6	4.5	4.0	4.4	4.4	4.4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4.6	5.4	5.6	5.9	5.4	5.1	5.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1	5.9	6.0	6.3	5.7	5.6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0	5.6	5.7	5.6	5.3	5.4	5.2
취약계층 복지 지원	4.9	5.7	5.8	6.1	5.6	5.4	5.3
농어작업 안전 (종사자만)	7.0	7.0	6.9	7.4	7.1	-	-
평균	4.8	5.3	5.4	5.3	5.1	5.1	5.0

주: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 교육 여건에 비해 문화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고령 응답자의 경우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교육·문화 전략부문에서 70대 이상 고령 응답자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은 ‘문화·여가 시설(4.7점)’, ‘문화·여가 프로그램(4.8점)’, ‘문화 공동체 활동(4.7점)’ 등 문화 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고령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평생교육 서비스 및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활동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 응답자의 경우에도 ‘문화 공동체 활동(4.7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4.7점)’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측정되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교육·문화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업군 응답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9점으로, 이들이 평가하는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평균인 5.1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만족도 점수보다도 낮다.

○ ‘문화여가 시설’,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문화 기회’ 항목에서 연령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여가 시설’ 항목에서 직업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전락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공교육 수준	5.7	5.9	5.8	5.8	5.7	5.9	5.7
방과후 교육 기회	5.5	5.7	5.6	5.4	5.5	5.7	5.5
평생교육 기회	4.9	5.2	5.2	5.0	5.0	5.1	5.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4.7	4.7	4.8	4.5	4.6	4.7	4.7
문화여가 시설	5.1	5.3	5.3	4.7	4.9	5.3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4.9	5.1	5.2	4.8	4.9	5.0	5.1
문화 공동체 활동	4.7	5.0	5.1	4.7	4.9	4.9	4.7
지역 향토문화 기회	5.1	5.5	5.4	5.3	5.3	5.3	5.3
평균	5.1	5.3	5.3	5.0	5.1	5.2	5.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 정주기반 전락부문의 여건에 대해 젊은 연령층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편, 생활 서비스와 외식 여건에 대해 고령층 응답자 역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 응답자가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여건은 ‘대중교통(4.8점)’이며, ‘난방 비용(5.3점)’, ‘다양한 외식 장소(5.5점)’, ‘생활 서비스(5.6점)’가 뒤를 잇고 있다. 이들 항목은 정주기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40대 이하 응답자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넓고 다양한 생활 반경으로 인해 더욱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 뿐 아니라 70대 이상 고령층 응답자 역시 ‘생활 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5점, 5.6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생활 서비스와 식자재 구입, 외식 여건에 대해,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 외 응답자들은 안전과 환경에 각각 상대적 불만족을 나타냈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특히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생활 서비스(5.5점)’, ‘식자재 구입(5.8점)’과 ‘다양한 외식 장소(5.5점)’이다.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반면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범죄 안전'과 '정돈된 환경 경관' 등 항목에서 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연령별간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식자재 구입', '외식', '교통안전' '범죄안전', '정돈된 환경 경관' 항목에서 직업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3〉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전략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대중교통	4.8	5.5	5.7	6.0	5.4	5.2	5.3
통신시설	6.7	7.2	7.0	6.4	6.6	7.0	6.8
생활 인프라	6.3	7.0	7.0	7.2	6.6	6.7	6.7
난방 비용	5.3	5.7	5.6	5.8	5.5	5.6	5.4
생활 서비스	5.6	6.1	6.0	5.5	5.5	6.0	5.8
식자재 구입	6.1	6.6	6.5	5.9	5.8	6.5	6.3
다양한 외식 장소	5.5	6.0	6.1	5.6	5.5	5.9	5.7
주택 상태	6.0	6.5	6.4	6.3	6.2	6.3	6.1
교통안전	5.7	6.4	6.5	6.9	6.5	6.1	5.9
자연재해 안전	6.2	6.9	7.0	7.6	6.8	6.6	6.7
범죄 안전	6.3	7.0	7.0	7.6	7.0	6.7	6.5
적은 환경오염	5.9	6.6	6.8	7.1	6.5	6.4	6.2
정돈된 환경 경관	6.1	6.8	6.9	7.3	6.8	6.5	6.4
평균	5.9	6.5	6.5	6.5	6.2	6.3	6.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이 느끼는 것보다 다문화 주민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항목과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4.8점, 4.7점으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다. 특히,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의 점수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만족도 점수도 낮아,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연령대에서 더욱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주부나 학생 등 정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범주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특히 ‘일자리 용이성’이나 ‘일자리 충분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1점, 4.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비교집단 응답자와 비교하여서도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또한 이들은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에서도 4.8점으로, 직업별 분류 집단 중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다.

○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에서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지원’,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항목에서 직업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3-14〉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연령별				직업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농림어업 종사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일자리 용이성	4.3	4.5	4.5	4.4	4.4	4.6	4.1
일자리 충분성	4.2	4.3	4.4	4.4	4.3	4.4	4.0
충분한 소득	4.8	4.7	4.8	4.7	4.8	4.8	4.6
일자리 지원	4.5	4.5	4.7	4.5	4.6	4.6	4.3
로컬푸드 판매	5.2	5.3	5.3	5.1	5.3	5.3	5.2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4.8	5.0	5.0	4.9	4.9	4.9	4.8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4.8	5.1	5.1	5.0	4.9	5.0	4.8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4.7	5.1	5.2	5.3	5.1	5.0	4.8
평균	4.7	4.8	4.9	4.8	4.8	4.8	4.6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지역 구분에 따른 만족도

□ 읍·면 지역별 분석⁸⁾

○ 정주 여건에 대한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만족도 격차는 근소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 중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에 대한 여건에는 읍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으나, 경제·일자리 여건에서는 오히려 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다.
- 보건·복지와 교육·문화 부문의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읍 지역이 0.2점 높았고, 정주기반 부문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0.1점 높았다. 하지만 경제·일자리 부문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면 지역에서 오히려 0.1점 높게 나타났다.

〈표 3-15〉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별 읍·면 주민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전체 평균
읍 지역	5.4	5.3	6.3	4.7	5.4
면 지역	5.2	5.1	6.2	4.8	5.3
읍·면 차이 (읍-면)	0.2	0.2	0.1	-0.1	0.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보건·복지 전략부문의 여건 중에서도 분만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열악한데, 농어촌 지역 안에서도 주민들은 면 지역이 읍 지역에 비해 훨씬 여건이 좋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같은 보건·복지 부문 내 다른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읍·면 지역 간 격차가 0.5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서 ‘의료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0.3점,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0.3점이라는 점수 차이를 보였다.
- 출산 여건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도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분만 의

⁸⁾ 읍·면 지역 비교에서는 농어업인 대상 세부 항목도 포함해서 분석하였기에 도·농 비교의 평균값과 차이가 있다.

료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여성 출산 지원' 여건에 대한 읍·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각각 0.3점, 0.4점씩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보건·복지 부문의 다른 세부 여건의 만족도 점수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6〉 보건·복지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여성 출산 지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	전체 평균
읍 지역	6.4	5.3	5.4	4.5	4.3	4.6	5.3	5.6	5.4	5.3	7.1	5.4
면 지역	5.9	5.0	5.1	4.2	3.9	4.2	5.1	5.6	5.3	5.5	7.0	5.2
읍·면 차이 (읍·면)	0.5	0.3	0.3	0.3	0.4	0.4	0.2	0.0	0.1	-0.2	0.1	0.2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여건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에 비해 전 연령에 걸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자녀뿐 아니라 성인,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0.3점 가량의 점수 격차를 보인다.
-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교육·문화 부문의 세부 여건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읍 지역에서는 5.5점, 면 지역에서 4.9점으로, 0.6점의 차이를 보였다.

〈표 3-17〉 교육·문화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읍 지역	5.9	5.7	5.3	4.9	5.5	5.1	4.9	5.4	5.3
면 지역	5.7	5.5	4.9	4.5	4.9	4.9	4.8	5.3	5.1
읍·면 차이 (읍-면)	0.2	0.2	0.4	0.4	0.6	0.2	0.1	0.1	0.2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여건 중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보다 특히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과 물품 구입에 관한 것이었다. 반대로 범죄나 환경 오염, 경관 저해 우려 등에서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보다 더 높은 평가를 내렸다.

- ‘생활 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이·미용실에 들르는 것, 목욕탕에 가는 것 등의 편의성을 묻는 점수다. 이를 포함해 ‘식자재 구입’과 ‘다양한 외식 장소’ 등 면 지역 주민들은 읍 지역에 비해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하기에 여건이 마땅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이나 환경, 경관 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돈된 환경 경관’에 대해서 0.4점, ‘범죄 안전’과 ‘적은 환경 오염’에서 각각 0.3점만큼 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점수가 읍 지역보다 높았다.

〈표 3-18〉 정주기반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구분	대중 교통	통신 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 비용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주택 상태	교통 안전	자연 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 경관	전체 평균
읍 지역	5.4	7.0	6.7	5.7	6.1	6.6	6.0	6.3	6.1	6.6	6.6	6.2	6.3	6.3
면 지역	5.2	6.7	6.6	5.4	5.6	6.0	5.5	6.1	6.3	6.7	6.9	6.5	6.7	6.2
읍·면 차이 (읍-면)	0.2	0.3	0.1	0.3	0.5	0.6	0.5	0.2	-0.2	-0.1	-0.3	-0.3	-0.4	0.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전략부문의 각 세부 여건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앞서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

한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 내에서 해당 부문 여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여건은 읍 지역에서의 만족도 점수가 면 지역보다 0.1점 높게 나왔지만, 그 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점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나 면 지역에서의 점수가 근소하게 높았다.
- 읍 지역보다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있는 면 지역에서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0.1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 여건도 면 지역에서의 평가가 0.2점 높았다.

〈표 3-19〉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11점 척도)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전체 평균
읍 지역	4.4	4.2	4.7	4.5	5.3	4.8	4.9	4.8	4.7
면 지역	4.4	4.3	4.8	4.6	5.2	4.9	5.0	5.0	4.8
읍·면 차이 (읍-면)	0.0	-0.1	-0.1	-0.1	0.1	-0.1	-0.1	-0.2	-0.1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시·도별 분석⁹⁾

○ 농어촌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및 대도시와 인접한 광역시 내 군 지역¹⁰⁾은 도 지역 농어촌에 비해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도 지역 농어촌 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 광역시 내 군 지역의 각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모든 전략부문에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최하점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해석된다.

9) 세부 여건에 대한 각 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부만 본문에 기술하며, 전체 만족도 점수 도출 결과는 〈부록3〉에 수록하였다.

10) 수도권 또는 대도시와 인접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 군 지역’으로 함께 분류하여 기타 도 지역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3-20〉 삶의 질 정책 전략부문 시·도별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광역시·군 지역	5.8	5.6	6.7	5.1
경기도	5.5	5.2	6.3	4.7
강원도	4.8	4.8	5.9	4.3
충청북도	5.0	5.2	6.0	4.8
충청남도	5.3	5.3	6.2	5.0
전라북도	5.4	5.2	6.3	4.7
전라남도	5.3	5.2	6.3	4.8
경상북도	4.8	4.6	5.7	4.2
경상남도	5.5	5.5	6.6	5.1
제주도	4.9	5.5	6.3	4.7
전국 평균	5.3	5.2	6.2	4.8

주: 만족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분만 및 응급의료, 주거·생활 여건, 경제활동 기회의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특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경상북도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주도는 분만 의료 서비스와 난방비 여건에 대해 만족도 점수가 낮다.

-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경상북도에서 4.6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 강원도가 4.7점으로 뒤따르고 있다.
- 제주도는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산후조리 서비스 편의성’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7점, 3.5점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은 산간 지역의 비율이 높으며, 제주도는 도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형적 특징이 열악한 정주 여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 제주도의 ‘난방비’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도서 지역의 특성상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21〉 시·도별 분만·응급의료 서비스, 주거·생활 여건, 경제활동 기회 만족도

(11점 척도)

구 분	분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주거 및 생활 여건			경제활동 기회	
	임산·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산후조리 서비스 편의성	출산 및 분만 지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난방비	생활 서비스	일자리 유형 다양성	취업 기회
광역시 군 지역	5.3	4.9	5.4	5.6	5.8	6.2	6.2	4.9	4.7
경기	4.3	4.1	4.5	5.7	5.5	5.5	6.0	4.4	4.2
강원	3.6	3.4	3.8	4.7	4.4	4.6	5.2	3.9	3.7
충북	3.8	3.6	3.7	4.8	5.3	5.4	5.8	4.9	4.7
충남	4.5	4.3	4.5	4.9	5.1	5.8	5.8	4.4	4.4
전북	3.9	3.7	4.5	5.4	5.6	5.2	5.6	4.2	4.3
전남	4.3	4.0	4.4	5.4	5.3	5.7	5.7	4.6	4.3
경북	4.2	3.9	3.9	4.6	4.8	5.3	5.2	4.0	3.8
경남	4.8	4.4	4.8	5.3	5.8	6.0	6.4	4.7	4.6
제주	3.7	3.5	4.0	4.9	5.5	5.0	5.9	4.5	4.0
전국 평균	4.3	4.0	4.4	5.2	5.3	5.5	5.8	4.4	4.3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 여건 만족도가 낮았던 경상북도 지역은 특히 자녀 교육과 문화 활동을 향유하기 위한 여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공교육 수준(5.2점)’과 ‘방과후 교육 기회(5.0점)’, 문화 생활 향유와 관련된 ‘문화여가 시설(4.6점)’, ‘문화여가 프로그램(4.4점)’, ‘문화공동체 활동(4.3점)’, ‘지역 향토문화(4.7점)’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전체 평균과 큰 격차를 보인다.

〈표 3-22〉 시도별 자녀 교육 및 문화생활 여건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자녀 교육 여건		문화생활 여건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문화 여가 시설	문화 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문화
광역시 군 지역	6.1	5.9	5.6	5.4	5.3	5.5
경기	5.8	5.4	5.5	5.3	4.7	5.3
강원	5.4	5.1	4.8	4.5	4.7	5.3
충북	5.7	5.7	5.1	4.9	4.9	5.3
충남	5.7	5.7	5.1	4.9	4.8	5.4
전북	6.2	6.2	4.8	5.0	4.7	5.3
전남	5.9	5.9	5.1	5.0	5.0	5.5
경북	5.2	5.0	4.6	4.4	4.3	4.7
경남	6.0	5.7	5.5	5.4	5.4	5.6
제주	6.8	6.2	5.7	5.1	5.0	5.4
전국 평균	5.8	5.6	5.2	5.0	4.8	5.3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3.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 이주 의향은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정주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여 이주 의향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 농어촌 주민 중에서는 40.9%가 타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나타내는 데 반해 도시 주민 중에서는 53.7%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시 주민은 이주 사유로 ‘주택문제(32.2%)’를 가장 먼저 꼽았으며, 농어촌 지역 주민은 ‘직장이나 일자리(31.2%)’를 주요 이주 이유로 꼽았다.

〈표 3-23〉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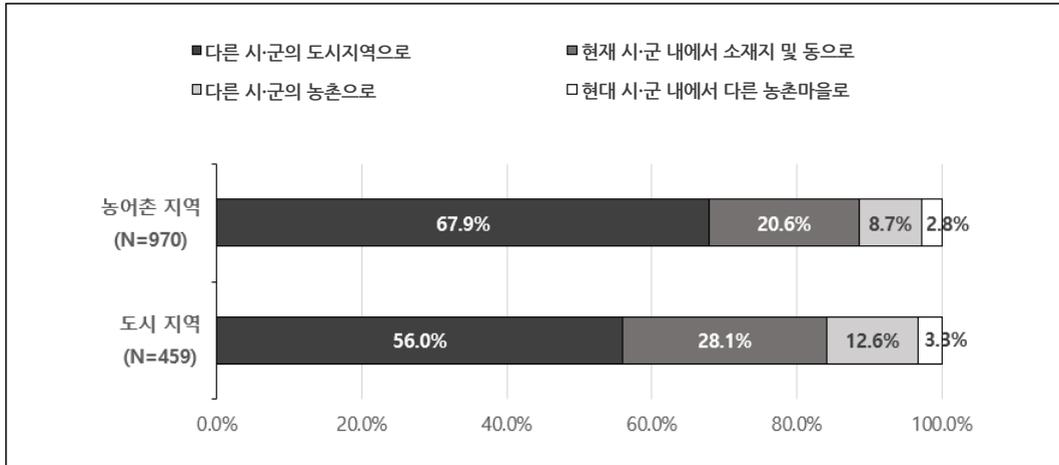
구분	응답 비율	
	도시 주민 (N=459)	농어촌 주민 (N=970)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	26.1	31.2
주택 문제 때문에(주택 노후 등)	32.2	15.4
의료서비스 / 건강 때문에	3.5	13.1
자녀 교육 때문에	10.0	12.9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때문에	4.6	8.1
교통 때문에	4.6	6.6
자연환경 때문에	13.7	5.1
기초생활서비스 때문에(생필품 구입 등)	1.5	4.8
안전 문제 때문에(자연재해, 치안 등)	1.1	0.4
기타	2.6	2.4
합계	100.0	100.0

주: '이주 의향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해서 질문한 문항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 지역을 물어본 결과, 80% 이상 주민들이 도시 지역(다른 시·군, 현재 시·군 내)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다.

-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 중에서 67.9%는 다른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20.6%는 현재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희망 농어촌 주민의 88.5%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였다. 이주 희망 농어촌 주민 중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은 11.5%에 불과했다.
-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도시 주민들도 다른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84.1%)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 비율도 15.9%로 농어촌 주민의 응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이주 의향이 있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429)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정주 만족도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삶의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4대 전략별 만족도 등 모든 정주 만족도 항목에서 이주 의향이 있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크게 저조하였다.
 - 예로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1.6점)’, ‘지역소속감(-1.9점)’, ‘대인관계(-1.7점)’ 등에서 큰 격차를 보였으며, 세부 항목별 만족도에서도 평균 1점 가량 낮게 집계되었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 주민들도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으나 농어촌 주민에 비해 크지 않았다.

〈표 3-24〉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11점 척도)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이주 의향 있다	없다	이주 의향 있다	없다
삶의 만족도	현재 행복감	5.5	6.1	5.8	6.7
	지역에서 생활 만족도	5.6	6.5	5.4	7.0
	마을 발전 전망	6.0	6.7	5.5	6.5
공동체/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5.1	5.8	4.8	6.7
	대인관계	5.4	5.9	5.3	7.0
	지역정책 신뢰도	5.5	6.1	5.0	6.3
	사회단체 참여도	4.0	4.5	3.6	5.0
4대 전략별 만족도	보건·복지	6.5	6.9	4.8	5.6
	교육·문화	6.1	6.5	4.8	5.5
	정주기반	6.9	7.4	5.7	6.6
	경제·일자리	5.0	5.5	4.3	5.1
	전체 평균	6.1	6.6	4.9	5.7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분석

1. 분만의료 및 영유아 돌봄 여건

○ 보건·복지 부문은 4대 전략부문 중 도시-농어촌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다.

- 앞선 분석 결과에서 분만의료와 관련된 ‘분만의료 서비스’와 ‘산후조리 서비스’ 만족도는 각각 4.3점, 4.0점으로 4대 전략부문의 세부 항목들 중 가장 낮았으며, 도시 지역과의 격차 역시 2.5점, 2.4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해당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의료 외에 영유아 돌봄과 관련한 아동 양육돌봄 여건 만족도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인 5.3점으로 도시 지역 6.4점보다 1.1점이 낮았다.

○ 분만의료와 영유아 돌봄 여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중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¹¹⁾.

¹¹⁾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정주민족도 조사 표본과 달리 5세 이하 영유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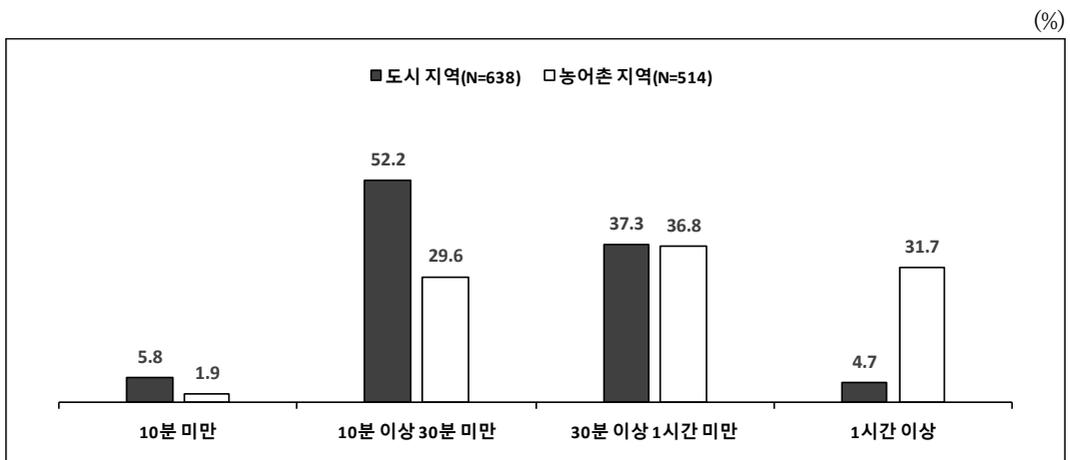
- 전체 표본은 도시 지역 1,000명, 농어촌 지역 748명이며, 분만의료 실태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도시민 638명, 농어촌 주민 51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출산한 산부인과까지의 이동시간,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 만족도와 영유아 돌봄 방법, 등하원 교통수단 및 이동시간, 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1.1. 분만의료 여건

○ 농어촌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자택에서 병원까지 이동한 시간은 평균 45.8분으로, 도시 지역의 25.2분보다 20.6분 더 소요되었다<그림 4-1>.

- 출산병원까지 이동시간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시간대는 농어촌 지역은 ‘1시간 이상’(31.7%), 도시 지역은 ‘10분 이상 30분 미만’(52.2%)이었다.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지역 36.8%, 도시 지역 37.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1시간 이상’의 이동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31.7%로 도시 지역 4.7%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그림 4-1> 분만한 산부인과까지의 이동시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지역은 ‘분만의료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해서, 도시 지역은 ‘출산 관련 교통, 숙박 지원’과 ‘산후조리 지원’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농어촌 지역은 ‘산부인과까지 이동시간’과 ‘응급진료 시설까지 이동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 서비스 수준’ 2.7점, ‘일반적인 여성질환 진료’ 2.8점 순이었다,
 -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낮았던 이동시간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관련 교통/숙박 지원 및 수준’과 ‘산후조리원/도우미 지원 및 수준’이 각각 3.2점,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 모든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 항목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이동시간 항목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의 분만의료와 출산 여건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7점으로, 도시 지역 3.5점보다 0.8점 낮았다.
 -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산부인과까지 이동시간’과 ‘응급진료 시설까지 이동시간’으로 각각 1.2점, 1.1점이었다.

〈표 4-1〉 도·농 간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분만의료				출산여건			전체
	산부인과까지 이동시간	응급진료 시설까지 이동시간	병원 서비스 수준	일반적인 여성질환 진료	지역 제공 혜택 정보 및 신청편의	산후조리원/도우미 지원 및 수준	출산관련 교통/숙박 지원 및 수준	
도시 지역	3.7	3.7	3.6	3.6	3.5	3.4	3.2	3.5
농어촌 지역	2.5	2.5	2.7	2.8	3.1	2.9	2.8	2.7
도·농 차이	-1.2	-1.1	-0.9	-0.8	-0.4	-0.5	-0.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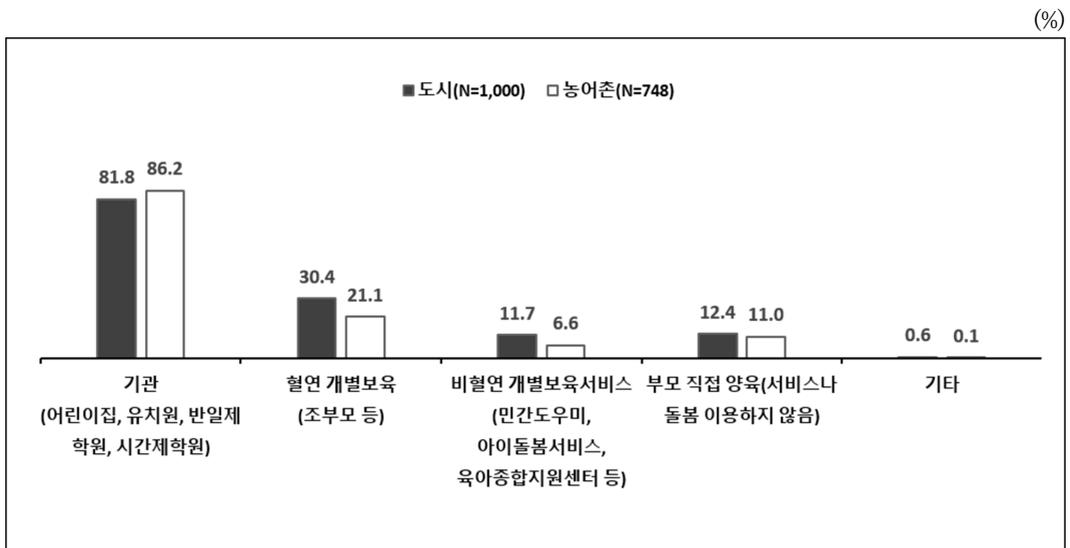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영유아 돌봄 여건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대부분이 자녀 돌봄 방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시 지역은 농어촌 지역보다 혈연 개별보육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 농어촌 지역의 86.2%, 도시 지역의 81.8%가 자녀 돌봄으로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와 '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농어촌 지역이 각각 21.1%, 6.6%로 도시 지역의 30.4%, 11.7%와 비교하여 적게 나타났다.

<그림 4-2>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 및 돌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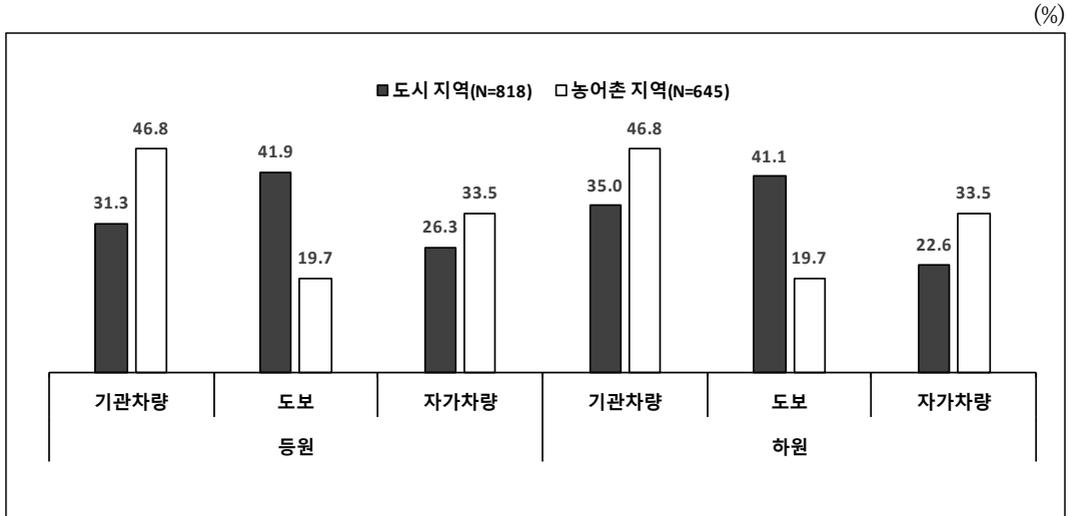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지역의 자녀들은 등하원시 차량 이용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 지역 자녀들은 도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등원 통학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기관차량 46.8%, 자가차량 33.5%, 도시 지역이 기관차량 31.3%, 자가차량 26.3%로 농어촌 지역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 도보를 이용하여 등원하는 경우는 도시 지역이 41.9%, 농어촌 지역이 19.7%로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과 비교하여 2배 가량 높았다.

〈그림 4-3〉 자녀의 등하원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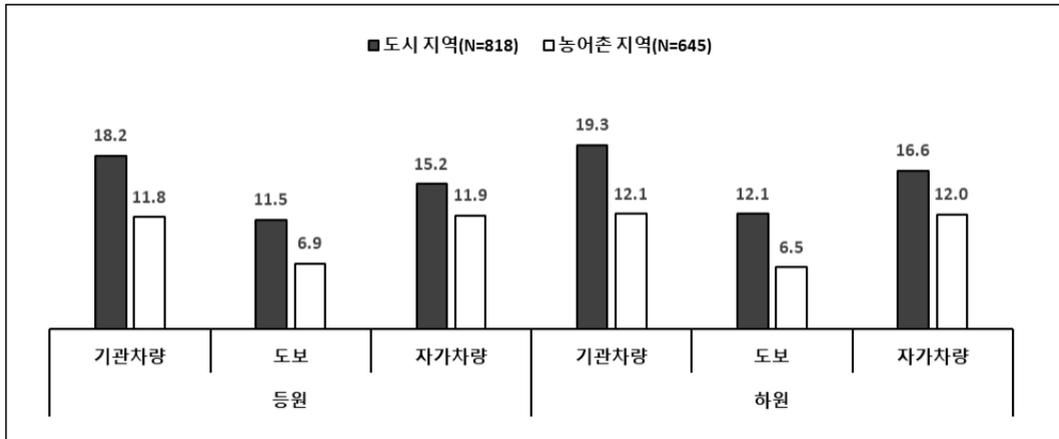
주: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 818명, 농어촌 주민 645명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등하원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적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을 이용한 등원시 농어촌 지역은 기관차량 11.8분, 자가차량 11.9분으로 도시 지역의 기관차량 18.2분, 자가차량 15.2분 보다 각각 6.4분, 3.3분 적게 소요되었다.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농어촌 지역 6.9분, 도시 지역 11.5분으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동시간이 4.6분 적게 소요되었다.
- 도보를 이용한 등하원 시간이 농어촌 지역에서 더 짧은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도보권은 읍면 소재지권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교통수단별 등하원 평균 이동시간

(분)



주: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 818명, 농어촌 주민 645명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모두 ‘교육·보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 항목에선 두 지역의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의 보육 기관 개선 1순위는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으로 16.1%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실내외 환경’이 15.8%로 그 뒤를 이었다.
- 도시 지역의 1순위로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25.1%로 가장 높았고 ‘비용’이 15.8%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순위였던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과 ‘실내외 환경’은 각각 8.6%, 9.3%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며, 안전 등 기관의 실내외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자녀 보육 기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 비교

(%)

구분	도시(N=818)		농어촌(N=645)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원장 및 교사	13.8	18.9	6.7	10.1
운영 시간	11.7	19.3	9.5	16.1
비용(교육, 보육료 등)	15.8	27.4	9.1	14.6
교육·보육 프로그램	25.1	41.9	15.8	33.6
건강·영양(급식, 간식 등)	10.6	27.8	9.8	20.6
실내외 환경	9.3	23.0	15.8	29.9
차량 운행 여부	5.0	9.3	6.0	8.5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8.6	27.0	16.1	35.2
기타	0.1	0.5	0.0	0.0

주: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 818명, 농어촌 주민 645명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다(표 4-3).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36.5%), ‘도서대여’(32.4%), ‘부모교육/체험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26.2%) 순으로 도시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 도시 지역과 비교해 더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13.2%), ‘아이돌봄서비스’(15.4%),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9.4%)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도·농 간 영유아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

지역 구분		이용률		
		도시 지역 (N=1,000)	농어촌 지역 (N=748)	전체 (N=1,748)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43.8	36.5	40.7
	도서대여	41.1	32.4	37.4
	시간제보육	16.5	11.9	14.5
	부모교육/체험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32.7	26.2	29.9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가족·부모·자녀 상담	17.4	14.4	16.1
	공동육아나눔터	11.9	13.2	12.5
	아이돌봄서비스	14.7	15.4	1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7	9.4	7.3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영유아 양육지원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약간 높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4-4).

- 농어촌 지역의 양육지원 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3.9점으로, 도시 지역 3.6점보다 0.3점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격차가 0.6점으로 가장 컸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 '도서대여',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4〉 도·농 간 영유아 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 비교

(5점 척도)

지역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시간제보육	부모교육/체험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가족교육/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도시 지역	3.8	3.8	3.5	3.7	3.6	3.6	3.5	3.5	3.6
농어촌 지역	4.0	4.0	3.8	3.9	3.9	3.8	3.7	4.0	3.9
도·농 차이	0.2	0.2	0.3	0.2	0.3	0.2	0.2	0.6	0.3

주: 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라 점차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사각지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절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4대 전략별 26개 서비스 시설에 대해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해당 시설별로 이용 여부, 횟수, 이동방법 등을 도시 및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4대 전략별 생활서비스 시설 목록은 아래 <표 4-5>와 같다.

<표 4-5> 4대 전략별 생활서비스 시설 목록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보건·복지	1.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등)	정주기반	1. 생활편의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2. 응급의료시설		2. 음식점, 카페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3. 소매점, 편의점
	4. 어린이집		4. 대형마트, 시장
	5. 아동복지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5. 금융(은행, 우체국 등)
	6.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6.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터미널, 기차역 등)
교육·문화	1. 초등학교		7. 행정기관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등)
	2. 중학교	경제일자리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3. 고등학교		2. 직업교육훈련기관
	4. 민간교육시설(학원 등)		3. 다문화취업지원센터 등
	5. 평생교육(성인교육)시설		4.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 도서관		
	7.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 시설		
	8.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9. 도시공원, 소공원, 놀이터 등		

자료: 연구진 작성.

○ 도·농 간 생활서비스 시설의 이용률을 비교하기 위해 최근 1년 내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 <표 4-6>에 나타나듯이 농어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은 의료기관(87.8%), 음식점 및 카페(82.7%), 대형마트/시장(80.2%), 금융시설(75.3%) 순으로 도시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 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은 시설에는 의료기관, 노인복지 관련 시설, 어린이집,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이·미용실/세탁소/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금융시설, 행정기관이 해당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에 해당하는 서비스 시설들은 도시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농어촌 주민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대중교통(-25.7%p), 도서관(-17.2%p), 미술관 등 전시시설(-12.0%p), 공원/놀이터 등(-23.4%p)의 이용률에서 도·농 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4-6>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률

(단위: %, %p)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률		
		농어촌(A)	도시(B)	도·농 차이(A-B)
보건·복지	의료기관(병원, 약국)	87.8	85.0	2.8
	응급의료시설	12.6	17.1	-4.5
	노인복지 관련시설	8.2	4.6	3.6
	어린이집	7.5	7.0	0.5
	아동복지 관련시설	3.8	4.4	-0.6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시설	4.5	3.9	0.6
교육·문화	초등학교	11.5	12.7	-1.2
	중학교	7.3	8.2	-0.9
	고등학교	5.2	7.0	-1.8
	민간교육시설(학원 등)	10.4	15.6	-5.2
	평생교육시설(성인교육)	8.0	11.7	-3.7
	도서관	25.1	42.3	-17.2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8.6	20.6	-12.0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21.2	24.9	-3.7
	도시/소공원, 놀이터 등	42.6	66.0	-23.4

(계속)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률		
		농어촌	도시	도·농 차이
정주기반	이미용, 세탁소, 목욕탕	74.3	72.0	2.3
	음식점, 카페	82.7	82.8	-0.1
	소매점, 편의점	77.2	85.3	-8.1
	대형마트, 시장	80.2	82.5	-2.3
	금융(은행, 우체국)	75.3	72.4	2.9
	대중교통(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50.7	76.4	-25.7
	행정기관(시군청, 주민자치센터)	64.7	61.5	3.2
경제·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 창업지원센터	3.7	6.5	-2.8
	직업교육 훈련기관	2.7	3.9	-1.2
	다문화취업 지원센터 등	1.2	1.5	-0.3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2.2	2.9	-0.7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심재현·민경찬(2023).

○ 시설별 월간 평균 이용 횟수를 도·농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대부분 시설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 이용 횟수에 있어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설에서 도시 지역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다소 높았다.
- 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이용횟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시설로는 노인복지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 관련 시설 등이 해당하였다.
- 반면, 도시민들이 농어촌 주민들에 비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는 대중교통,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해당했으며, 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등도 도시민의 이용 빈도가 농어촌 주민에 비해 많았다.

〈표 4-7〉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횟수

(단위: 회/월)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월 평균 이용 횟수		
		농어촌	도시	도·농 차이
보건·복지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등)	1.6	1.6	0.0
	응급의료시설	0.8	0.9	-0.1
	노인복지 관련 시설	6.9	3.7	3.2
	어린이집	11.0	10.1	0.9
	아동복지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5.4	4.8	0.6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2.5	3.6	-1.1
문화	도서관	2.9	3.3	-0.4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 시설	1.4	1.5	-0.1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5.2	6.5	-1.3
	도시공원, 소공원, 놀이터 등	5.7	7.0	-1.3
정주기반	생활편의 (이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1.8	1.7	0.1
	음식점, 카페	4.2	5.3	-1.1
	소매점, 편의점	6.2	7.5	-1.3
	대형마트, 시장	3.9	4.4	-0.5
	금융(은행, 우체국 등)	2.3	2.2	0.1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4.1	8.0	-3.9
행정기관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등)	1.1	1.0	0.1	
경제·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1.7	2.5	-0.8
	직업교육훈련기관	2.6	4.7	-2.1
	다문화취업지원센터 등	3.3	4.8	-1.5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7	3.1	-0.4

주: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를 조사하지 않음.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심재현·민경찬(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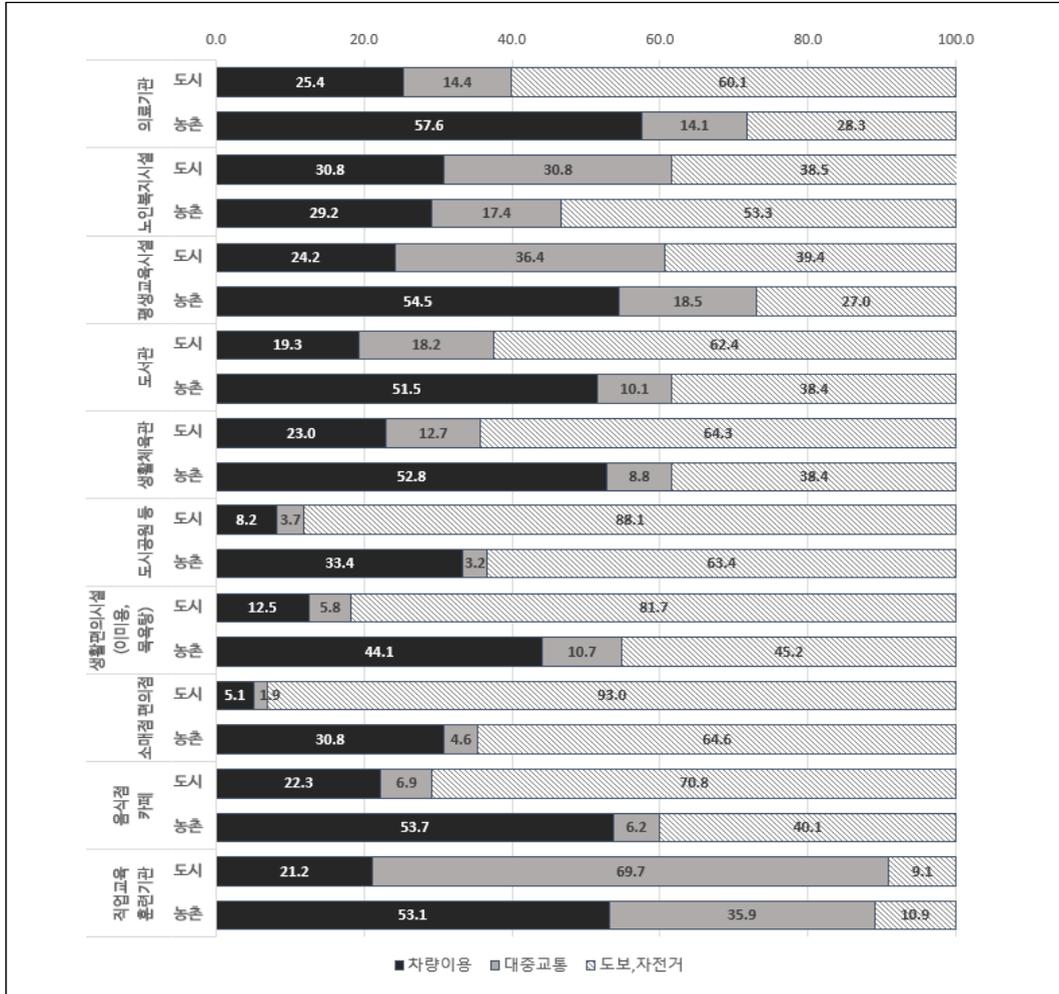
○ 각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이동수단을 조사한 결과, 〈그림 4-5〉와 같이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농어촌 주민은 57.6%가 차량(자동차/오토바이/택시)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도시 주민의 60.1%는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민들의 90% 가량이 도보 또는 자전거로 도시공원, 소매점·편의점을 이용하는 반면, 약 30% 이상의 농어촌 주민들은 이를 차량으로 방문·이용하고 있다.
- 대중교통은 도시 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았다.

〈그림 4-5〉 생활서비스 시설 이동 수단

(단위: %)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심재현·민경찬(2023).

○ 이어서 각 시설까지 편도 이동시간을 차량 이용자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에 비해 소요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 특히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수의 시설 이용에 차량으로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상대적으로 민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주기반 부문 시설들은 도시와 농어촌 동일하게 대부분 20분 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응급의료시설,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과 경제·일자리 관련 시설들은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5~10분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생활서비스 시설별 차량 접근성

(분)

구분	서비스 시설	차량 이용시 평균 소요시간		
		읍부	면부	동부
보건복지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17.3	21.6	15.8
	응급의료시설	21.5	26.6	15.4
	노인복지 관련시설	20.5	20.5	17.9
	어린이집	14.3	16.4	11.3
	아동복지 관련시설	19.6	23.9	12.3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시설	18.7	27.0	22.3
교육문화	초등학교	11.2	15.9	14.3
	중학교	17.8	19.0	14.2
	고등학교	16.9	28.7	27.5
	민간교육시설 (학원 등)	18.2	20.7	16.0
	평생교육시설 (성인교육)	24.2	24.4	21.9
	도서관	14.4	20.6	15.6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32.5	28.8	24.7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19.7	20.9	16.8
도시/소공원, 놀이터 등	19.1	21.4	18.8	
정주기반	이미용, 세탁소, 목욕탕	14.0	17.6	13.8
	음식점, 카페	15.3	17.6	17.5
	소매점, 편의점	11.1	14.1	12.4
	대형마트, 시장	17.6	19.5	14.2
	금융(은행, 우체국)	13.1	15.1	12.4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18.3	17.8	17.5
	행정기관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12.2	13.9	13.3
경제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 창업지원센터	32.5	31.7	18.0
	직업교육 훈련기관	26.3	35.5	22.6
	다문화취업 지원센터 등	14.5	38.8	16.3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23.2	30.8	15.0

주: 차량으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심재현·민경찬(2023).

- 지난 한달간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절반 이상은 거주하는 마을이나 거주 읍·면·동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특히 차량이 없는 농어촌 주민의 64.0%는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유리하여 차량 유무가 생활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 주민들은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생활반경에 큰 차이가 있었다.

〈표 4-9〉 지난 한달간 생활 반경

(%)

구분	도시			농어촌		
	차량 있음	차량 없음	전체	차량 있음	차량 없음	전체
거주하는 마을(행정리) 주변	19.7	20.7	20.0	17.1	25.8	18.8
거주하는 읍·면·동 범위	32.9	32.3	32.7	39.0	38.2	38.9
소계	52.6	53.0	52.7	56.1	64.0	57.7
해당 시군 범위	28.4	29.0	28.5	25.0	22.1	24.4
다른 시군까지 이동	19.0	18.0	18.7	18.9	14.0	1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해당 서비스 시설이 본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문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시설이나 정주기반 및 문화·여가 관련 시설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표 4-10).¹²⁾
 - 연령대별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설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40대 이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관련 시설과 경제·일자리 관련 시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주민은 의료나 복지 관련시설, 정주기반 시설이 본인 삶의 질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¹²⁾ 생활서비스 시설 중요도에 있어 도·농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 농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시설 중요도

(점)

구분	생활서비스 시설	중요도(점)		
		40대 이하 (N=1,033)	60대 이상 (N=677)	차이
보건·복지	의료기관 (병원, 약국)	7.8	8.5	-0.7
	응급의료시설	7.5	8.2	-0.7
	노인복지 관련시설	6.0	7.4	-1.4
	어린이집	6.1	5.7	0.4
	아동복지 관련시설	5.9	5.6	0.3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시설	5.8	5.7	0.1
	초등학교	6.8	6.1	0.7
교육·문화	중학교	6.6	6.1	0.5
	고등학교	6.7	6.1	0.6
	민간교육시설 (학원 등)	6.3	5.7	0.6
	평생교육시설 (성인교육)	6.3	6.5	-0.2
	도서관	6.8	6.2	0.6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6.2	5.9	0.3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6.9	7.0	-0.1
	도시/소공원, 놀이터 등	7.3	7.4	-0.1
	정주기반	이미용, 세탁소, 목욕탕	6.8	7.8
음식점, 카페		7.3	7.4	-0.1
소매점, 편의점		7.3	7.1	0.2
대형마트, 시장		7.6	7.8	-0.2
금융(은행, 우체국)		7.3	7.6	-0.3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7.1	7.4	-0.3
행정기관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6.9	7.2	-0.3
고용복지플러스, 창업지원센터		5.7	5.1	0.6
경제일자리	직업교육 훈련기관	5.8	4.9	0.9
	다문화취업 지원센터 등	5.1	4.5	0.6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	5.5	4.8	0.7

주: 11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7점 이상인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현재 확충이 필요한 생활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시설 둘 다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은 공공 서비스에 못지않게 민간 서비스(병원, 음식점, 학원, 소매점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반면 도시 주민들은 추가적인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에 달하였고, 상대적으로 민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공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표 4-11〉 현재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

구분	현재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도시	농어촌	전체
공공 서비스(복지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	51.8	42.7	45.1
민간 서비스(병원, 음식점, 학원, 소매점 등)	16.7	44.6	37.2
없음(이미 충분하다)	20.5	5.3	9.3
잘 모르겠다	11.0	7.4	8.4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2022년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5

결론

1. 조사 결과 요약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전반적인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도·농 간 만족도 차이가 유지되었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보다 점수가 하락하였다. 도·농 간 점수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 항목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소폭 높았으나, 마을 및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 ‘주관적 웰빙 지수’는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도시, 농어촌 두 지역에서 모두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특히 어제의 우울 정도와 같이 부정적 정서의 해소가 두드러졌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는 농어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점수는 소폭 하락하였다. 다만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점수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 삶의 질 관련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점수 또한 도시 및 농어촌 모두 전년도보다 하락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 4대 전략부문별 도·농 만족도 격차는 전년도보다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분만과 관련된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극심했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졌으며,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와 연결되는 '생활 서비스', '다양한 외식 장소' 등 일상생활 소비와 관련된 여건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소득 활동의 기회 측면에서의 여건을 도시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만을 대상으로 부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 의향이 있는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40대 이하 연령층의 주민은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였다. 또한 대중교통과 일상 소비생활에도 불만족하고 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 주민은 그 외 연령대에 비해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 접근성, 나아가 분만의료 여건에 더해 일상 소비 활동,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특정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 중 40.9%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 중 88.5%가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는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보다 크게 저조했다.

- 2022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와 관련하여 분만의료 및 영유아 보육, 생활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평균 45.8분으로, 도시보다 20.6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의료 시설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주민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보육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등하원 시 기관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는 등 보육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서비스 이용에 있어 특정 시설을 제외하면 농어촌 주민과 도시 주민 모두 비슷한 이용률과 중요도를 보였으나,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차량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 2022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인 정주 만족도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도·농 간 격차가 심화·유지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 특히 정주 만족도 조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에 있어 2021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 크게 반등했었던 것과 달리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 간의 격차도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지난 한 해 위드코로나 전환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정치적 변화,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적 위기에 따른 외부적인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하락 폭이 큰 것은 농어촌 지역의 취약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2021년 대비 2020년 도시 지역의 4대 전략부문 평균 만족도가 0.1점 감소한 것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0.4점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의 기대효과로 농어촌 삶의 질 만족도 수준 향상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전략부문별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 부분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도 도·농 간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보건·복지 부문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며 연령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은 계속해서 중요한 삶의 질 정책 의제가 될 전망이다.

- 농어촌 주민들 또한 정책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보건·복지 부문을 꼽고 있어 최우선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 특히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고, 이용 실태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분 만의료 및 영유아 보육 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다른 한편, 70대 이상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확충도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해 효과적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리하며 생활서비스 이용 시 더 먼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대다수 농어촌 주민들은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시설 복합화,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등의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 록 1

1. 2022년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2022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 -도시민

2022092805-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셔서 얻은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09~10

수행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정부 조직입니다.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 일시	___월 ___일 ___시				

SQ1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1. 동 지역	2. 읍 지역	3. 면 지역	
LOC	귀하께서는 어느 광역시도에 거주하십니까?	1. 서울 5. 광주 9. 경기 13. 전북 17. 제주	2. 부산 6. 대전 10. 강원 14. 전남	3. 대구 7. 울산 11. 충북 15. 경북	4. 인천 8. 세종 12. 충남 16. 경남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AGE	귀하는 올해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만 19세 미만 면접 중단			
		1. 19세~29세 4. 50세~59세	2. 30세~39세 5. 60세~69세	3. 40세~49세 6. 70세 이상	

LOC1-1. (서울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종로구 | ② 중구 | ③ 용산구 | ④ 성동구 | ⑤ 광진구 | ⑥ 동대문구 |
| ⑦ 중랑구 | ⑧ 성북구 | ⑨ 강북구 | ⑩ 도봉구 | ⑪ 노원구 | ⑫ 은평구 |
| ⑬ 서대문구 | ⑭ 마포구 | ⑮ 양천구 | ⑯ 강서구 | ⑰ 구로구 | ⑱ 금천구 |
| ⑲ 영등포구 | ⑳ 동작구 | ㉑ 관악구 | ㉒ 서초구 | ㉓ 강남구 | ㉔ 송파구 |
| ㉕ 강동구 | | | | | |

LOC1-2. (부산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중구 | ② 서구 | ③ 동구 | ④ 영도구 | ⑤ 부산진구 | ⑥ 동래구 |
| ⑦ 남구 | ⑧ 북구 | ⑨ 해운대구 | ⑩ 사하구 | ⑪ 금정구 | ⑫ 강서구 |
| ⑬ 연제구 | ⑭ 수영구 | ⑮ 사상구 | ⑯ 기장군 | | |

LOC1-3. (대구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중구 | ② 동구 | ③ 서구 | ④ 남구 | ⑤ 북구 | ⑥ 수성구 |
| ⑦ 달서구 | ⑧ 달성군 | | | | |

LOC1-4. (인천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중구 | ② 동구 | ③ 미추홀구 | ④ 연수구 | ⑤ 남동구 | ⑥ 부평구 |
| ⑦ 계양구 | ⑧ 서구 | ⑨ 강화군 | ⑩ 옹진군 | | |

LOC1-5. (광주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① 동구 | ② 서구 | ③ 남구 | ④ 북구 | ⑤ 광산구 |
|------|------|------|------|-------|

LOC1-6. (대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① 동구 | ② 중구 | ③ 서구 | ④ 유성구 | ⑤ 대덕구 |
|------|------|------|-------|-------|

LOC1-7. (울산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① 중구 | ② 남구 | ③ 동구 | ④ 북구 | ⑤ 울주군 |
|------|------|------|------|-------|

LOC1-9. (경기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수원시 | ② 성남시 | ③ 의정부시 | ④ 안양시 | ⑤ 부천시 | ⑥ 광명시 |
| ⑦ 평택시 | ⑧ 동두천시 | ⑨ 안산시 | ⑩ 고양시 | ⑪ 과천시 | ⑫ 구리시 |
| ⑬ 남양주시 | ⑭ 오산시 | ⑮ 시흥시 | ⑯ 군포시 | ⑰ 의왕시 | ⑱ 하남시 |
| ⑲ 용인시 | ⑳ 파주시 | ㉑ 이천시 | ㉒ 안성시 | ㉓ 김포시 | ㉔ 화성시 |
| ㉕ 광주시 | ㉖ 양주시 | ㉗ 포천시 | ㉘ 여주시 | ㉙ 연천군 | ㉚ 가평군 |
| ㉛ 양평군 | | | | | |

LOC1-10. (강원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춘천시 | ② 원주시 | ③ 강릉시 | ④ 동해시 | ⑤ 태백시 | ⑥ 속초시 |
| ⑦ 삼척시 | ⑧ 홍천군 | ⑨ 횡성군 | ⑩ 영월군 | ⑪ 평창군 | ⑫ 정선군 |
| ⑬ 철원군 | ⑭ 화천군 | ⑮ 양구군 | ⑯ 인제군 | ⑰ 고성군 | ⑱ 양양군 |

LOC1-11. (충청북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청주시 | ② 충주시 | ③ 제천시 | ④ 보은군 | ⑤ 옥천군 | ⑥ 영동군 |
| ⑦ 증평군 | ⑧ 진천군 | ⑨ 괴산군 | ⑩ 음성군 | ⑪ 단양군 | |

LOC1-12. (충청남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천안시 | ② 공주시 | ③ 보령시 | ④ 아산시 | ⑤ 서산시 | ⑥ 논산시 |
| ⑦ 계룡시 | ⑧ 당진시 | ⑨ 금산군 | ⑩ 부여군 | ⑪ 서천군 | ⑫ 청양군 |
| ⑬ 홍성군 | ⑭ 예산군 | ⑮ 태안군 | | | |

LOC1-13. (전라북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전주시 | ② 군산시 | ③ 익산시 | ④ 정읍시 | ⑤ 남원시 | ⑥ 김제시 |
| ⑦ 완주군 | ⑧ 진안군 | ⑨ 무주군 | ⑩ 장수군 | ⑪ 임실군 | ⑫ 순창군 |
| ⑬ 고창군 | ⑭ 부안군 | | | | |

LOC1-14. (전라남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목포시 | ② 여수시 | ③ 순천시 | ④ 나주시 | ⑤ 광양시 | ⑥ 담양군 |
| ⑦ 곡성군 | ⑧ 구례군 | ⑨ 고흥군 | ⑩ 보성군 | ⑪ 화순군 | ⑫ 장흥군 |
| ⑬ 강진군 | ⑭ 해남군 | ⑮ 영암군 | ⑯ 무안군 | ⑰ 함평군 | ⑱ 영광군 |
| ⑲ 장성군 | ⑳ 완도군 | ㉑ 진도군 | ㉒ 신안군 | | |

LOC1-15. (경상북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포항시 | ② 경주시 | ③ 김천시 | ④ 안동시 | ⑤ 구미시 | ⑥ 영주시 |
| ⑦ 영천시 | ⑧ 상주시 | ⑨ 문경시 | ⑩ 경산시 | ⑪ 군위군 | ⑫ 의성군 |
| ⑬ 청송군 | ⑭ 영양군 | ⑮ 영덕군 | ⑯ 청도군 | ⑰ 고령군 | ⑱ 성주군 |
| ⑲ 칠곡군 | ⑳ 예천군 | ㉑ 봉화군 | ㉒ 울진군 | ㉓ 울릉군 | |

LOC1-16. (경상남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 | | | | | |
|-------|-------|-------|-------|-------|-------|
| ① 창원시 | ② 진주시 | ③ 통영시 | ④ 사천시 | ⑤ 김해시 | ⑥ 밀양시 |
| ⑦ 거제시 | ⑧ 양산시 | ⑨ 의령군 | ⑩ 함안군 | ⑪ 창녕군 | ⑫ 고성군 |
| ⑬ 남해군 | ⑭ 하동군 | ⑮ 산청군 | ⑯ 함양군 | ⑰ 거창군 | ⑱ 합천군 |

LOC1-17. (제주도 거주자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십니까?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PART A. 제주 여건 및 만족도

Q01.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읍/면/동 ()리(행정리)

Q02. 귀하께서 현재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 년

Q03.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귀하는 어제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귀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귀하는 어제 우울하셨습니까?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04.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마을'이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리(행정리)'범위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지금 행복하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나는 지금 건강하다	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05.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나는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0--1--2--3--4--5--6--7--8--9--10
2. 나는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끼고 있다	0--1--2--3--4--5--6--7--8--9--10
3. 나는 거주하는 지역(사군 또는 읍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신뢰한다	0--1--2--3--4--5--6--7--8--9--10
4. 나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단체(정당,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0--1--2--3--4--5--6--7--8--9--10
5. 나는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0--1--2--3--4--5--6--7--8--9--10
6. 나는 거주 지역 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린다. (예. 네이버 밴드,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0--1--2--3--4--5--6--7--8--9--10

Q06.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사·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보건 · 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이 다양하다	0--1--2--3--4--5--6--7--8--9--10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양호하다	0--1--2--3--4--5--6--7--8--9--10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1. 출산 이후 산후조리서비스	0--1--2--3--4--5--6--7--8--9--10
	2. 여성의 출산 및 분만에 대한 지원	0--1--2--3--4--5--6--7--8--9--1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아동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농어업종사자만 설문) 농기계어선 사고 등 농어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0--1--2--3--4--5--6--7--8--9--10	

Q07. 다음은 보건·복지 관련한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 내 다음 시설들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해 보셨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방문횟수, 이동방법, 이동시간, 귀하 삶의 중요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거주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보기에서 선택			(모두 응답) 귀하 삶의 중요도			
	아니오	예	평균 방문횟수	주된 이동방법	이동시간 (한 방향)	중요도 낮음	← 보통 →	매우 중요	
보건	1.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	1 2	()	()	() 분	0-1-2-3-4-5-6-7-8-9-10			
	2. 응급의료시설	1 2	()	()	() 분	0-1-2-3-4-5-6-7-8-9-10			
복지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1 2	()	()	() 분	0-1-2-3-4-5-6-7-8-9-10			
	4. 어린이집	1 2	()	()	() 분	0-1-2-3-4-5-6-7-8-9-10			
	5. 아동복지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 2	()	()	() 분	0-1-2-3-4-5-6-7-8-9-10			
	6. 여성다문화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	1 2	()	()	() 분	0-1-2-3-4-5-6-7-8-9-10			

평균 방문 횟수 보기

1. 주 3회 이상 2. 주 1~2회 수준 3. 월 1~2회 수준 4. 분기별 1~2회 수준 5. 연 1~2회 수준

주된 이동 방법 보기

1. 자동차/오토바이 2. 버스 3. 지하철 4. 택시 5. 자전거 6. 도보

Q08.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교육 문화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방과후 학교, 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활동(대학생 멘토링, 마을 교사활동 등)이 잘 이뤄진다	0--1-2-3--4-5-6--7-8-9--1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다	0--1-2-3--4-5-6--7-8-9--10
	동호회·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0--1-2-3--4-5-6--7-8-9--10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0--1-2-3--4-5-6--7-8-9--10

Q09. 다음은 교육 관련한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귀하께서 다음 시설들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해보셨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방문횟수, 이동방법, 이동시간, 귀하나 자녀의 삶의 중요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거주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이용 여부 (학교는 자녀)		(이용하는 경우) 보기에서 선택			(모두 응답) 귀하/자녀 삶의 중요도			
	아니 오	예	위치	통학수단 (학교는 자녀)	이동시간 (한 방향)	중요도 낮음	← 보통 →	매우 중요	
교육	1. 초등학교	1 2	()	()	() 분	0-1-2-3-4-5-6-7-8-9-10			
	2. 중학교	1 2	()	()	() 분	0-1-2-3-4-5-6-7-8-9-10			
	3. 고등학교	1 2	()	()	() 분	0-1-2-3-4-5-6-7-8-9-10			
	4. 민간교육시설 (학원 등)	1 2	()	()	() 분	0-1-2-3-4-5-6-7-8-9-10			
	5. 평생교육 (성인교육)시설	1 2	()	()	() 분	0-1-2-3-4-5-6-7-8-9-10			

위치 보기

1. 행정리 내 2. 같은 읍면동 내 3. 인접한 다른 읍면동 4. 다른 시군

통학 수단 보기

1. 자동차/오토바이 2. 버스 3. 지하철 4. 택시 5. 자전거 6. 도보 7. 학교 제공 차량(통학 버스 등)

Q10. 다음은 문화 관련한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 내 다음 시설들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해보셨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방문횟수, 이동방법, 이동시간, 귀하 삶의 중요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거주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보기에서 선택			(모두 응답) 귀하 삶의 중요도			
	아니 오	예	평균 방문횟수	주된 이동방법	이동시간 (한 방향)	중요도 낮음	← 보통 →	매우 중요	
문화	1. 도서관	1 2	()	()	() 분	0-1-2-3-4-5-6-7-8-9-10			
	2.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 시설	1 2	()	()	() 분	0-1-2-3-4-5-6-7-8-9-10			
	3. 생활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1 2	()	()	() 분	0-1-2-3-4-5-6-7-8-9-10			
	4. 도시공원, 소공원 놀이터 등	1 2	()	()	() 분	0-1-2-3-4-5-6-7-8-9-10			

평균 방문 횟수 보기

1. 주 3회 이상 2. 주 1~2회 수준 3. 월 1-2회 수준 4. 분기별 1-2회 수준 5. 연 1-2회 수준

주된 이동 방법 보기

1. 자동차/오토바이 2. 버스 3. 지하철 4. 택시 5. 자전거 6. 도보

Q11.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정주기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0	1	2	3	4	5	6	7	8	9	10
정주 기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연간 지출되는 난방비가 적절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생활품 구입, 목욕탕, 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편의점, 마트 등에서 양질의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카페, 식당 등 외식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다양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마을 혹은 거주지 주변이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0	1	2	3	4	5	6	7	8	9	10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Q12. 다음은 생활편의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 내 다음 시설들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해보셨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방문횟수, 이동방법, 이동시간, 귀하 삶의 중요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거주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보기에서 선택			(모두 응답) 귀하 삶의 중요도											
	아니오	예	평균 방문횟수	주된 이동방법	이동시간 (한 방향)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	매우 중요								
정주 기반 (생활편의)	1. 이미움, 세탁소, 목욕탕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2. 음식점, 카페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3. 소매점, 편의점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4. 대형마트, 시장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5. 금융(은행, 우체국 등)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6.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7. 행정기관 (시군청, 주민자치센터 등)	1	2	()	()	() 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방문 횟수 보기

1. 주 3회 이상 2. 주 1~2회 수준 3. 월 1~2회 수준 4. 분기별 1~2회 수준 5. 연 1~2회 수준

주된 이동 방법 보기

1. 자동차/오토바이 2. 버스 3. 지하철 4. 택시 5. 자전거 6. 도보

Q15. 다음은 경제·일자리 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 내 다음 시설들을 최근 1년 내에 이용해보셨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방문횟수, 이동방법, 이동시간, 귀하 삶의 중요도를 다음 보기에서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거주 시군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이용 여부		(이용하는 경우) 보기에서 선택		
	아니오	예	평균 방문횟수	주된 이동방법	이동시간 (한 방향)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1	2	()	()	()분
2. 직업교육훈련기관	1	2	()	()	()분
3. 다문화취업지원센터 등	1	2	()	()	()분
4.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	2	()	()	()분

평균 방문 횟수 보기

1. 주 3회 이상 2. 주 1~2회 수준 3. 월 1~2회 수준 4. 분기별 1~2회 수준 5. 연 1~2회 수준

주된 이동 방법 보기

1. 자동차/오토바이 2. 버스 3. 지하철 4. 택시 5. 자전거 6. 도보

구분	(모두 응답) 귀하 삶의 중요도					(모두 응답) 시설 충분성					
	중요도 낮음	←	보통	→	매우 중요	매우 불충분	←	보통	→	매우 충분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0	1	2	3	4	5	6	7	8	9	10
2. 직업교육훈련기관	0	1	2	3	4	5	6	7	8	9	10
3. 다문화취업지원센터 등	0	1	2	3	4	5	6	7	8	9	10
4.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0	1	2	3	4	5	6	7	8	9	10

Q16.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중요도 낮음 ←----- 보통 -----> 매우 중요
1.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	0--1--2--3--4--5--6--7--8--9--10
2.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여건	0--1--2--3--4--5--6--7--8--9--10
3.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	0--1--2--3--4--5--6--7--8--9--10
4. 적절한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일자리 여건	0--1--2--3--4--5--6--7--8--9--10

Q17. 귀하가 사시는 지역에서 현재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공공서비스(복지시설, 문화시설, 행정시설)
- 2. 민간서비스(병원, 음식점, 학원, 소매점 등)
- 3. 없음(이미 충분하다)
- 4. 잘모름

Q18. 귀하께서는 필수 생활서비스 수준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더 고려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속성 A	A가 더 중요 <----->								동등	-----> B가 더 중요								속성 B
이동 시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동 비용
이동 시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동 방법
이동 비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동 방법

Q1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달 동안 주로 생활하신 생활반경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거주하는 마을(행정리) 주변
2. 거주하는 읍면동 범위
3. 해당 시군 범위
4. 다른 시군까지 이동

Q20. 귀하께서는 향후 여건이 된다면 이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Q20-1, 2번으로 이동
2. 없다 ☞ Q20번으로 이동

Q20-1. (이주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입니까?

1.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으로
2.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3. 현재 시군 내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및 동으로
4.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20-2. (이주 의향이 있다면) 귀하께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직장이나 일자리(농업 포함) 때문에
2. 주택 문제 때문에(주택 노후 등)
3. 자녀 교육 때문에
4. 의료서비스 / 건강 때문에
5. 기초생활서비스 때문에(생필품 구입 등)
6. 교통 때문에
7.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때문에
8. 자연환경 때문에
9. 안전 문제 때문에(자연재해, 치안 등)
10. 기타 ()

Q23. (Q20-1에서 '예' 응답, 기관 이용을 하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1. 원장 및 교사 | 2. 운영 시간 | 3. 비용(교육·보육료 등) |
| 4. 교육·보육 프로그램 | 5.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 6. 실내의 환경 |
| 7. 차량 운행 여부 | 8.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 9. 기타 () |

Q24.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지원 위한 기관들입니다. 각각에 대해, 귀하나 자녀가 이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용하신 경우 만족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관 명	서비스 명	이용 경험		(이용한 경우) 이용 만족도				
		아니오	예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육아종합 지원센터	1. 장난감 도서관	1	2	1	2	3	4	5
	2. 도서 대여	1	2	1	2	3	4	5
	3. 시간제 보육	1	2	1	2	3	4	5
	4. 부모교육/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1	2	1	2	3	4	5
건강가정 지원센터	5. 가족교육 및 가족·부모·자녀 상담	1	2	1	2	3	4	5
	6. 공동육아 나눔터	1	2	1	2	3	4	5
	7. 아이돌봄 서비스	1	2	1	2	3	4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2	1	2	3	4	5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타 양육 콘텐츠 제공 및 상담 제공)
- ※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한 기관(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 (한국어 교육,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응용교육, 취업교육 지원, 가족교육)
- ※ (공공) 아이돌봄비 :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자체에 시간제 혹은 종일제로 아이돌봄비 파견을 신청하여 가정에 방문한 돌보미가 자녀를 돌보는 제도. 가구소득수준별로 이용비용 차등 지원
-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자녀 양육 부모 간 정보 공유, 돌봄 품앗이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
- ※ 장난감 도서관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
- ※ 도서 대여 :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도서를 무료로 대여
- ※ 부모교육 : 영유아 자녀 및 가정의 안정된 복지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양육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
- ※ 시간제 보육 :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체험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 아이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가족 대상 행사
- ※ 가족교육 : 가족 내의 문제 예방 및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 ※ 가족·부모·자녀 상담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 상담, 이혼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상담
- ※ 공동육아나눔터(육아품앗이) :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
-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비롯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남성대상 육아교육
-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Q30. 귀하께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시군구)에서 다음의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분만 의료	1. 자택에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병원까지의 이동시간	1	-----	2	-----	3	-----	4	-----	5
	2. 자택에서 임신·출산 응급진료시설까지 이동시간	1	-----	2	-----	3	-----	4	-----	5
	3.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의 서비스 수준	1	-----	2	-----	3	-----	4	-----	5
	4. 지역에서 임신·출산 이외의 일반적인 여성 질환에 대한 진료 서비스 수준	1	-----	2	-----	3	-----	4	-----	5
출산 여건	1. 지역에서 제공되는 임신·출산 과정의 다양한 혜택 정보 및 신청 편의	1	-----	2	-----	3	-----	4	-----	5
	2. 지역에서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지원 등 산후조리 서비스 수준	1	-----	2	-----	3	-----	4	-----	5
	3. 지역에서 제공되는 출산 지원 교통수단 숙박시설 서비스 수준	1	-----	2	-----	3	-----	4	-----	5

Q31.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시군구)에서 분만의료 및 출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분만 의료	1. 우리 지역에서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가깝고 이동하기 편리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우리 지역에 있거나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 등 분만의료인력은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만족스럽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우리 지역에서는 분만 이외의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양호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우리 지역에서는 임신, 분만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시설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출산 여건	5. 우리 지역에서는 분만 이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우리 지역에서는 임신, 분만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신청도 편리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우리 지역에서는 출산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혹은 숙박시설 서비스를 잘 지원하고 있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우리 지역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보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잘 제공한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우리 지역에서는 취약한 여건에 있는 임신부(고위험, 미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출산,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이 양호하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2020~2022년 도·농 정주 만족도 점수 추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부문별 만족도 점수)

(11점 척도)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7.7	7.7	5.7	6.3	6.1
	의료 서비스 범위	7.1	7.3	7.3	5.0	5.6	5.1
	의료 서비스 수준	6.9	7.2	7.2	5.1	5.7	5.3
	분만의료 서비스	6.7	7.0	6.8	4.4	5.2	4.3
	산후조리 서비스	-	-	6.4	-	-	4.0
	여성 출산 지원	-	-	6.2	-	-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7.3	7.0	5.2	5.9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6.8	6.5	5.5	6.0	5.6
	아동 양육 보호 지원	6.3	6.7	6.4	5.4	5.9	5.3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6.6	6.2	5.6	6.1	5.4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	6.5	-	-	5.9	-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	5.5	-	5.9	7.0	7.1
(평균)	6.8	7.0	6.8	5.2	5.8	5.1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6	6.7	6.8	5.2	5.8	5.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6.6	6.7	5.1	5.7	5.6
	평생교육 기회	6.1	6.3	6.2	4.7	5.4	5.1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1	6.3	5.9	4.7	5.4	4.7
	문화 여가 시설	6.2	6.5	6.6	4.6	5.4	5.2
	문화 여가 프로그램	6.2	6.2	6.3	4.4	5.2	5.0
	문화 공동체 활동	5.7	5.9	5.8	4.7	5.2	4.8
	향토문화 향유	5.7	-	-	4.9	-	-
	지역 향토 문화 기회	-	-	6.0	-	-	5.3
(평균)	6.1	6.4	6.3	4.8	5.4	5.2	
정주 기반	대중교통	7.1	7.3	7.2	5.2	5.7	5.3
	통신시설	7.6	7.7	7.8	6.1	6.7	6.9
	생활 인프라	7.3	7.7	7.5	5.9	6.4	6.7
	난방 비용	-	-	6.4	-	-	5.5
	생활 서비스	7.3	7.6	7.3	5.6	6.2	5.8
	식자재 구입	-	-	7.6	-	-	6.3
	다양한 외식 장소	-	-	7.3	-	-	5.8
	주택 상태	6.7	7.0	7.0	5.9	6.4	6.2
	교통안전	6.5	6.8	6.7	6.0	6.4	6.2
	자연재해 안전	7.0	7.3	7.3	6.2	6.7	6.7

(계속)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응급차량 접근성	-	7.1	-	-	6.6	-
	범죄 안전	6.7	6.9	7.0	6.4	6.7	6.7
	적은 환경오염	6.6	6.8	6.9	6.1	6.4	6.4
	정돈된 환경·경관	6.6	6.9	6.9	6.2	6.6	6.5
	에너지 비용 절감	6.1	6.4	-	5.4	6.1	-
	(평균)	6.9	7.1	7.1	5.9	6.4	6.2
경제 ·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소득 기회)	5.6	5.7	5.1	4.5	5.2	4.4
	일자리 충분성	-	-	5.0	-	-	4.3
	충분한 소득	-	-	5.4	-	-	4.8
	경제여건 향상	5.3	5.6	-	4.6	5.3	-
	농외소득(농촌만)	-	-	-	5.0	5.6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5.3	-	-	-	-
	일자리 지원	5.5	5.6	5.3	4.7	5.3	4.6
	로컬푸드 판매	-	-	5.5	-	-	5.3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	-	5.0	-	-	4.9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	-	4.8	5.4	-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	-	5.2	-	-	5.0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	-	-	-	-	4.9
	(평균)	5.5	5.6	5.2	4.6	5.3	4.7
〈표본수〉	〈793명〉	〈738명〉	〈855명〉	〈2,219명〉	〈2,445명〉	〈2,370명〉	

3. 2022년 4대 전략부문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보건·복지 전략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병의원/약국 이용 편의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신후조리 서비스 편의성	출산 및 분만 지원	신속한응급의 료 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이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농어직업 안전성
광역시 내 군 지역	6.3	5.8	5.9	5.3	4.9	5.4	5.6	6.0	5.9	5.9	6.9
경기	6.3	5.2	5.3	4.3	4.1	4.5	5.7	6.0	5.7	5.6	7.8
강원	6.1	4.4	4.8	3.6	3.4	3.8	4.7	5.0	4.9	5.2	7.3
충북	5.9	4.9	5.0	3.8	3.6	3.7	4.8	5.4	5.1	5.2	7.2
충남	6.1	5.3	5.4	4.5	4.3	4.5	4.9	5.6	5.3	5.6	6.8
전북	6.4	5.3	5.4	3.9	3.7	4.5	5.4	5.9	5.6	5.7	7.3
전남	5.9	5.1	5.2	4.3	4.0	4.4	5.4	5.8	5.7	5.6	7.3
경북	5.7	4.8	4.8	4.2	3.9	3.9	4.6	5.1	4.7	4.8	6.2
경남	6.3	5.5	5.6	4.8	4.4	4.8	5.3	5.8	5.5	5.6	7.3
제주	6.2	4.9	5.1	3.7	3.5	4.0	4.9	5.0	4.8	4.9	6.8
전국 평균	6.1	5.1	5.3	4.3	4.0	4.4	5.2	5.6	5.3	5.4	7.1

〈교육·문화 전략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통합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문화
광역시 내 군 지역	6.1	5.9	5.4	5.2	5.6	5.4	5.3	5.5
경기	5.8	5.4	5.1	4.7	5.5	5.3	4.7	5.3
강원	5.4	5.1	4.8	4.2	4.8	4.5	4.7	5.3
충북	5.7	5.7	5.2	4.9	5.1	4.9	4.9	5.3
충남	5.7	5.7	5.3	4.9	5.1	4.9	4.8	5.4
전북	6.2	6.2	5.1	4.4	4.8	5.0	4.7	5.3
전남	5.9	5.9	5.0	4.4	5.1	5.0	5.0	5.5
경북	5.2	5.0	4.6	4.3	4.6	4.4	4.3	4.7
경남	6.0	5.7	5.2	5.0	5.5	5.4	5.4	5.6
제주	6.8	6.2	5.1	5.0	5.7	5.1	5.0	5.4
전국 평균	5.8	5.6	5.1	4.7	5.2	5.0	4.8	5.3

〈정주기반 전략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비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매	외식	주택 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광역시 내 군 지역	5.8	7.1	7.1	6.2	6.2	6.5	6.5	6.7	6.6	6.9	7.2	7.0	7.0
경기	5.5	7.2	6.9	5.5	6.0	6.6	5.8	6.2	5.9	6.9	6.6	6.4	6.4
강원	4.4	6.9	6.8	4.6	5.2	6.1	5.3	6.1	5.9	6.5	6.6	6.3	6.5
충북	5.3	6.9	6.5	5.4	5.8	6.2	6.0	6.0	5.8	6.5	6.5	5.8	6.2
충남	5.1	6.8	6.8	5.8	5.8	6.1	5.5	6.2	6.3	6.8	6.7	6.3	6.6
전북	5.6	6.9	6.7	5.2	5.6	6.3	5.8	6.4	6.5	6.9	7.1	6.3	6.6
전남	5.3	6.6	6.6	5.7	5.7	6.0	5.5	6.2	6.3	6.8	7.1	6.7	6.8
경북	4.8	6.1	6.1	5.3	5.2	5.7	5.2	5.8	6.0	6.0	6.3	5.9	6.1
경남	5.8	7.1	6.8	6.0	6.4	6.8	6.3	6.5	6.6	6.8	6.9	6.6	6.9
제주	5.5	7.1	6.7	5.0	5.9	6.4	6.2	6.5	6.2	6.4	7.0	6.5	6.8
전국 평균	5.3	6.9	6.7	5.5	5.8	6.3	5.8	6.2	6.2	6.7	6.7	6.4	6.5

〈경제·일자리 전략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11점 척도)

구분	일자리 유형 다양성	충분한 취업 기회	소득수준	취업·창업 지원	특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 판매	관광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임인 경제활동 지원
광역시 내 군 지역	4.9	4.7	5.2	5.0	5.4	5.1	5.3	5.3
경기	4.4	4.2	4.7	4.6	5.2	4.8	5.0	4.9
강원	3.9	3.7	4.4	4.0	4.8	4.5	4.6	4.6
충북	4.9	4.7	5.0	4.6	5.2	4.6	4.8	4.8
충남	4.4	4.4	5.0	4.8	5.7	5.1	5.2	5.3
전북	4.2	4.3	4.7	4.7	5.6	5.0	4.9	4.6
전남	4.6	4.3	4.6	4.4	5.3	5.2	5.1	5.1
경북	4.0	3.8	4.2	4.1	4.6	4.1	4.3	4.6
경남	4.7	4.6	5.1	5.0	5.5	5.3	5.3	5.2
제주	4.5	4.0	4.9	4.2	5.3	5.6	4.7	4.7
전국 평균	4.4	4.3	4.8	4.6	5.3	4.9	5.0	4.9

참고문헌

- 김민석.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 김태완.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욱, 나현수, 손경민. (202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완.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민경찬.(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생활서비스 혁신.” 농업전망 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발간예정).
- 유은영.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